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균원¹⁾, 구자현²⁾, 김민경³⁾, 최지영⁴⁾

< 요약 >

I. 서론	3
II. 부산지역 인구 및 자영업 구조 진단	4
1.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특성	4
2. 자영업 구조 및 특성	16
III. 선행연구	40
IV. 분석 방법 및 결과	43
1. 부산지역 패널 회귀분석	43
2. 전국 패널 회귀분석	56
3. 향후 부산지역 자영업 규모 추정 시나리오 분석	59
V. 결론 및 시사점	63

1)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3)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4)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 요약 >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인구 감소, 빠른 고령화, 청년층 순유출,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인구학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 규모 축소에 그치지 않고 소비구조, 산업구조, 자영업의 진입·퇴출 및 생존 동학을 변화시키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을 보면, 부산의 총인구는 2010년 약 357만 명에서 2024년 약 327만 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1.3%에서 2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청년층(15~34세)은 28.2%에서 21.1%로 줄었으며, 청년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인 가구 비중도 23.4%에서 36.4%로 급증하여 소비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별 가계소비 구조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 보건·식품 등 필수계 소비 비중은 높아진 반면 교육·음식·숙박 등 선택재 소비 비중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전 산업의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감소 폭이 크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자영업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형 자영업은 감소한 반면, 단독형 자영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쟁 과밀이 심화된 반면, 제조업은 개·폐업률이 낮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구·군별로 산업집중도(HHI)와 다양성(엔트로피) 지수에 차이가 나타나, 일부 지역은 특정 업종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는 반면 다른 지역은 다양한 업종 구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201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하였고, 최근에는 신생기업의 생존율도 하락세를 보여 부산 자영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 요인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가 자영업 비율, 개업을 및 폐업을 등 시장 동학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부산 자영업을 단일한 평균적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구·군 단위 패널분석과 지표 비교를 통해 지역 내부의 이질성과 편차를 드러냈다. 자영업 생존율, 산업집중도(HHI), 다양성(엔트로피) 지수 등을 활용해 구·군별 차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통계청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와 계량 분석을 결합하여 장기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가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증회귀 분석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부산 16개 구·군 패널 분석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자영업 비율, 개업률, 폐업률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이는 시장의 활력 둔화로 이어졌다. 청년 인구 비중은 일부 시기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전반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패널 분석에서는 청년 인구 비중이 개업률 증가와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개업·폐업률 모두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의 진입과 퇴출 메커니즘 전반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부산 자영업 생태계는 장기적으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개업과 폐업의 흐름이 모두 둔화되면서 시장의 회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신규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기존의 동학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자영업자의 수적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산업 전환이나 혁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진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전통적인 자영업 기반이 점차 축소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자생적 역량 역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산 자영업은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 쇠퇴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 인구 유치만으로는 자영업 활성화에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위험분담형 창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고령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디지털 적응, 업종 전환, 공동물류·마케팅, 재무조정 등 연착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로 확대되는 보건·돌봄·생활서비스 수요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공간적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원도심은 공실 활용과 상권 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 회복을, 신개발 지역은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변동성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측면에서는 부산의 전통 제조·물류 기반을 디지털화·고도화하고, ICT 및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부산 자영업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시장 역동성의 약화와 구조적 축소에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 생태계의 직접적인 연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내부의 편차와 장기전망까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산 자영업 정책이 연령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보여준다.

I. 서론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통적으로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경제위기나 노동시장 침체 시 자영업 진입이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¹⁾ 이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종의 고용 완충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산업구조, 사회안전망, 고용관행 등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의 비중이 어떤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구조적 전환을 도모해야 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한편,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자영업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폐업률이 개업률을 초과하여 전체 자영업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는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2010년: 357만여 명, 2024년: 327만여 명)와 급격한 고령화(2010년 65세 이상 비중: 11.3%, 2024년: 23.9%), 청년층의 이탈(2010년 15-34세 비중: 28.2%, 2024년: 21.1%), 1인 가구 증가(2010년 비율: 23.4%, 2023년: 36.4%) 등 타지역에 비해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개인사업체)²⁾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은 자영업자 비율이 국내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빠른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기반 축소, 창업 및 고용할 수 있는 생산인구 감소 등이 자영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의 자영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인구구조 변화(청년층 비중 감소, 고령층 비중 증가)가 자영업의 개업률과 폐업률,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질문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1)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3.5%로, 유럽연합(14.5%)이나 일본(9.6%)보다 높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한다(OECD(2025), Self-employment rate).
 2) 2020 통계용어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체를 자영업 사업체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통계청,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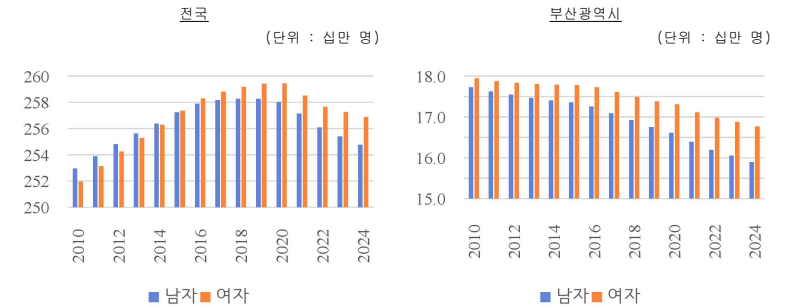
- 1) 지난 10여 년간 부산 지역의 인구구조와 자영업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 2)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 산업구조는 어떠한 특성과 구성을 보이는가?
- 3)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 수 변화는 인구, 고용률, 자영업 비율 중 어떠한 요인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가?
- 4) 인구구조 변화가 부산과 다른 지역의 자영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5) 부산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향후 자영업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의 인구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세대 구성, 가구 형태, 성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II. 부산지역 인구 및 자영업 구조 진단

1.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특성

<그림 1> 전국 및 부산광역시의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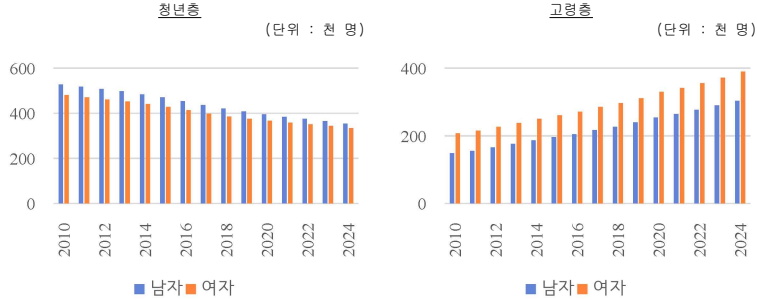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은 최근 15년간 전국 및 부산의 성별 인구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부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성 인구의 감소 폭이 여성보다 크다.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시점도 전국보다 이르며, 이후 남녀 간

인구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비 구조로, 평균 수명이 긴 여성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 실제로 부산의 남녀 성비(남성/여성)는 2010년 98.8에서 2024년 94.8로 감소하여, 전국 평균이 성비 100 이하로 전환된 시점(2015년)보다 빠른 변화를 보였다.

<그림 2> 부산광역시의 청년 및 고령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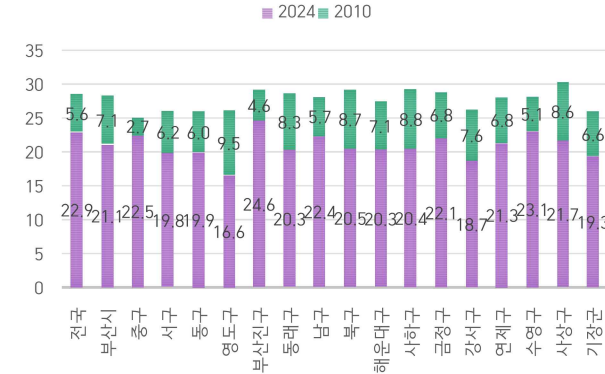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변화는 <그림 2>에 나타난 부산광역시의 청년층 및 고령층 인구 변화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청년 인구는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은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순유출과 출생아 수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령층 인구는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고령층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수치는 부산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 전국 및 부산시 청년인구 비중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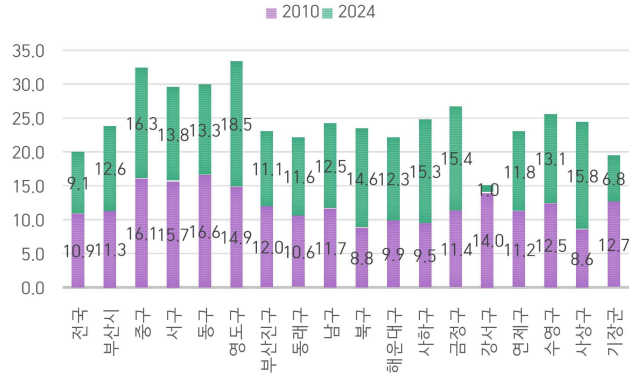
주 : 녹색 막대는 2010년 대비 2024년에 감소한 비중을 나타내며, 2024년의 수치는 당해연도 청년인구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가공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추세는 구·군별 분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그림 3>은 전국 평균과 비교한 부산시 각 구·군별 청년 인구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2010년 부산시의 청년 인구는 28.2%로 전국 평균인 28.5%보다 불과 0.3%p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 전국의 청년 인구 비중은 22.9%인데 반해, 부산시는 21.1%로 전국보다 빠른 속도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대비 2024년 모든 구·군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영도구(26.1%→16.6%), 동래구(28.6%→20.3%) 등에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인다. 이처럼 부산 전체 청년층 비중은 2010년 28.2%에서 2024년 21.1%로 7.1%p 줄어들며, 지역의 젊은 인구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모든 구·군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4>). 부산시 전체 고령 인구 비중은 2010년 11.3%에서 2024년 23.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고령 인구 비중도 10.9%에서 20.0%로 상승해 2024년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였으나, 부산은 이미 2021년에 초고령사회로 앞서 진입한바 있다. 특히 영도구의 고령 인구 비중은 14.9%에서 33.4%로 두 배 이상 상승해 부산 내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구가 되었다. 이처럼 청년층 유출과 고령층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며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는 점점 더 노령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그림 4> 전국 및 부산시 고령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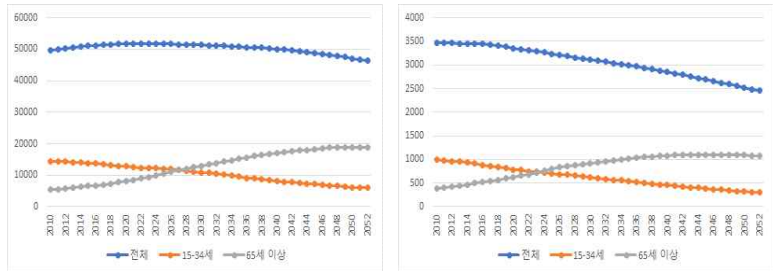
(단위 : %)



주: 2010년의 수치는 당해연도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며, 녹색 막대는 2010년과 2024년 사이의 변화를 표시함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가공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전국 및 부산시의 청년 및 고령 인구 장기추계

전국 (단위: 천 명) 부산시 (단위: 천 명)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이러한 변화는 장기 인구추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5>는 전국과 부산의 총인구, 청년 인구, 고령 인구의 장기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부산의 총인구는 2010년 대비 2030년에 약 10% 감소, 2050년에는 약 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국 인구는 2030년에 2010년 대비 약 4% 증가하고, 2050년에도 감소폭은 약 5%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부산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전국보다 훨씬 빠르며, 지역 인구 기반의 축소가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부산은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라는 이중 구조의 인구구조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이동의 패턴에서도 확인된다.

<표 1> 부산시 인구이동 추이

(단위: 명)

연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내이동-시군구내	시도내이동-시군구간 전입	시도내이동-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2010	519,334	547,800	-28,466	168,131	225,399	225,399	125,804	154,270
2011	508,043	532,906	-24,863	167,237	209,693	209,693	131,113	155,976
2012	461,042	481,652	-20,610	150,358	190,110	190,110	120,574	141,184
2013	478,451	496,161	-17,710	156,335	202,017	202,017	120,099	137,809
2014	485,710	500,802	-15,092	154,513	198,769	198,769	132,428	147,520
2015	507,031	520,591	-13,560	163,750	212,595	212,595	130,686	144,246
2016	459,015	480,407	-21,392	147,728	192,793	192,793	118,494	139,886
2017	439,073	467,471	-28,398	139,074	182,532	182,532	117,467	145,865
2018	416,095	442,854	-26,759	130,540	178,172	178,172	107,383	134,142
2019	411,704	435,058	-23,354	125,676	176,434	176,434	109,594	132,948
2020	491,829	506,176	-14,347	155,767	214,524	214,524	121,538	135,885
2021	441,323	460,226	-18,903	136,072	189,085	189,085	116,166	135,069
2022	383,848	397,410	-13,562	109,335	169,621	169,621	104,892	118,454
2023	364,271	375,703	-11,432	103,359	158,695	158,695	102,217	113,649
2024	378,597	392,254	-13,657	104,762	169,070	169,070	104,765	118,422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표 1>에 따르면 부산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순유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 유출 규모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인구 유출의 중심에 청년층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2>를 보면 지난 15년간 부산의 순유출 인구 중 15~34세 청년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2010년 전체 순유출 인구 28,466명 중 절반이 넘는 16,607명(약 58.3%)이 청년층이었으며, 2024년에도 전체 순유출 13,657명 중 6,662명(약 48.8%)이 청년에 해당한다.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순유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부산의 청년 인구는 2010년 약 101만 명에서 2024년 69만 명대로 약 32% 감소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구성의 연령대 변화 이상의 구조적 의미를 지닌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지역 경제의 역동성 약화, 노동 생산성 하락, 노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특히

출산 가능 인구의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장기적이고 가속화되는 인구 축소 경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표 2> 부산시 청년층¹⁾ 인구이동 추이

연도	순이동률 ²⁾	청년순이동인구 ³⁾	청년연앙인구 ⁴⁾
2010	-1.6	-16,607	1,008,071
2011	-1.5	-14,855	990,612
2012	-1.4	-13,242	969,065
2013	-1.1	-10,694	950,987
2014	-0.9	-8,626	925,197
2015	-0.8	-6,965	900,420
2016	-1.0	-8,842	869,255
2017	-1.2	-9,985	835,792
2018	-1.4	-11,005	806,442
2019	-1.2	-9,707	783,044
2020	-0.7	-5,682	762,922
2021	-0.9	-6,736	742,855
2022	-0.8	-5,643	727,225
2023	-0.8	-5,390	710,250
2024	-1.0	-6,662	690,099

주 : 1) 15-34세

2) 순이동률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3) 순이동인구 = 전입인구 - 전출인구

4) 주민등록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인구이동 규모를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와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인구 규모임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주목할 또 다른 흐름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표 3>에 따르면, 2010년 29만 가구였던 부산의 1인 가구 수는 2023년 53만 가구로 약 1.8배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3.4%에서 36.4%로 상승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비혼·만혼 경향과 고령층의 단독가구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자영업 생태계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 단위 소비의 감소는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존 자영업 업종의 수요 기반을 약화하는 한편, 간편식, 1인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는 지역경제의 소비 기반을 개인 단위로 전환시키며, 이는 상권 구성과 지역 내 자영업 업종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결국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자영업의 업종 구성, 상권 재편 등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산과 같이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자영업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창업 주체인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함으로써, 자영업 창업 측면에서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표 3> 부산시 1인 가구 변화 추이

(단위 : %, 가구)

연도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일반 가구
2010	23.4	290,902	1,243,880
2015	27.1	361,749	1,335,900
2016	27.7	372,412	1,344,170
2017	28.7	388,899	1,354,401
2018	29.7	404,408	1,363,608
2019	30.7	423,227	1,377,030
2020	32.4	455,207	1,405,037
2021	34.0	487,362	1,431,365
2022	35.3	511,745	1,447,825
2023	36.4	532,509	1,462,404

자료 : 「인구총조사」, 통계청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은 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층 유출,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라는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소비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구조가 소비 수요의 양적·질적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향후 자영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 구조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표 4> 연령대별 가구주의 소비지출 비중

(단위 : %)

	전체 평균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소비지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비주류음료	13.25	9.98	12.61	13.66	19.91
주류·담배	1.43	1.42	1.23	1.31	1.30
의류·신발	4.88	5.64	4.99	4.82	4.24
주거·수도·광열	12.13	13.36	10.29	11.32	13.76
가정용품·가정서비스	4.29	5.18	4.00	3.69	4.50
보건	9.57	6.17	6.72	8.25	13.24
교통	11.58	13.47	10.69	12.32	10.12
통신	4.93	4.18	4.43	4.85	4.02
오락·문화	7.88	8.94	7.78	7.09	6.41
교육	7.99	4.76	14.75	8.91	1.31
음식·숙박	14.69	18.99	15.37	15.74	12.65
기타상품·서비스	7.58	7.88	7.14	8.02	8.55

주 : 2024년 전국 1인 가구 이상 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24년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4>).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필수 생활유지 지출이 증가하고, 여가·교육·외식 등 선택적 소비가 감소하는 생애주기적 소비 패턴의 변화로 해석된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식료품과 주거 관련 지출이 각각 19.91%, 13.7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는 13.24%로 전 연령대 평균(9.57%)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항목은 고령층의 소비 비중이 낮아 앞으로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연령대별 소비 지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부산의 고령층 증가와 청년층 감소는 지역 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령대별 평균 소비지출이 2024년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부산 지역 가구구조의 변화가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근거한 부산시 연령대별 가구주 수의 변화를 활용하였으며, 연령별 평균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에 기반한 전국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소비지출 추정은 김원규(2017)의 인구-소비 연계 추정식을 적용하였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PC_t^j = \sum_j PCA_{t0}^i * PH_{jt}$$

여기서 PC_t^j 는 소비지출항목 j 에 대한 연도 t 의 총가구 소비지출, PCA_{t0}^i 는 2024년 기준 연령대 j 의 가구당 항목 i 에 대한 평균 소비재 지출, PH_{jt} 는 t 년의 j 연령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이다. 상기 추정식에서 김주영 외(2019)에서처럼 향후 연령대별 항목별 소비재 지출이 202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1인 이상)

	비중			증가율		
	2025	2035	2050	2025-2035	2035-2050	2025-2050
전체 소비지출	100.00	100.00	100.00	-0.37	-1.01	-0.75
식료품·비주류음료	14.77	15.45	16.12	0.08	-0.73	-0.40
주류·담배	1.31	1.31	1.31	-0.38	-1.02	-0.77
의류·신발	4.83	4.75	4.67	-0.53	-1.13	-0.89
주거·수도·광열	12.31	12.50	12.64	-0.22	-0.93	-0.6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33	4.34	4.34	-0.32	-1.02	-0.74
보건	9.15	9.69	10.22	0.21	-0.66	-0.31
교통	11.46	11.30	11.13	-0.51	-1.10	-0.87
통신	4.35	4.31	4.28	-0.46	-1.04	-0.81
오락·문화	7.39	7.26	7.10	-0.55	-1.15	-0.91
교육	6.85	6.11	5.49	-1.50	-1.71	-1.63
음식·숙박	15.28	14.94	14.57	-0.60	-1.17	-0.94
기타상품·서비스	7.97	8.05	8.13	-0.27	-0.95	-0.68

주 : 부산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장래가구추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는 위 추정 방식을 부산 지역 1인 이상 가구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인구 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항목 간 소비 비중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 가구의 비중 확대에 따라 식료품·비주류음료와 보건 관련 항목의 비중은 2025년부터 2050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 비중은 14.77%에서 16.12%로, 보건 비중은 9.15%에서 10.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해당 항목의 절대 소비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감소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젊은 층의 소비 성향이 강한 항목들은 소비 비중과 절대액 모두에서 감소세가 예상된다. 이는 해당 업종 중심의 자영업이 구조적으로 수요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자영업 업종 구조와 상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2인 이상)

	비중			증가율		
	2025	2035	2050	2025-2035	2035-2050	2025-2050
전체 소비지출	100.00	100.00	100.00	-0.91	-1.16	-1.06
식료품·비주류음료	14.98	15.56	16.07	-0.54	-0.95	-0.78
주류·담배	1.12	1.13	1.13	-0.85	-1.12	-1.01
의류·신발	4.91	4.85	4.80	-1.04	-1.24	-1.16
주거·수도·광열	10.85	11.05	11.23	-0.73	-1.05	-0.9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39	4.40	4.39	-0.89	-1.17	-1.06
보건	9.12	9.60	10.02	-0.41	-0.87	-0.69
교통	11.61	11.48	11.38	-1.03	-1.22	-1.14
통신	4.41	4.39	4.38	-0.96	-1.17	-1.09
오락·문화	7.34	7.27	7.21	-1.00	-1.22	-1.13
교육	8.35	7.45	6.64	-2.05	-1.91	-1.96
음식·숙박	14.85	14.64	14.47	-1.05	-1.24	-1.16
기타상품·서비스	8.06	8.18	8.28	-0.78	-1.08	-0.96

주 : 부산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장래가구추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추가적으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6>), 1인 이상 가구보다 전체 소비 지출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부산의 2인 이상 가구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 항목별 변화 패턴은 1인 이상 가구와 유사하나, 교육, 음식·숙박 등 가구 단위 소비 비중이 높은 항목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는 가족 단위 소비가 지역 자영업의 주요 수요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 생태계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변화

(단위 : %, 조 원)

	비중			2025-2035		2025-2050	
	2025	2035	2050	증감(조원)	증가율	증감(조원)	증가율
전산업	100.00	100.00	100.00	-3.09	-0.5	-11.78	-0.8
농림수산물	3.55	3.99	4.05	0.155	0.7	-0.157	-0.3
광산품	0.00	0.00	0.00	0.000		0.000	
음식료품	11.53	12.16	12.34	0.029	0.0	-0.937	-0.5
섬유, 가죽제품	4.79	4.61	4.74	-0.256	-0.9	-0.593	-0.9
목재 및 종이, 인쇄	0.39	0.36	0.33	-0.033	-1.4	-0.078	-1.5
석탄 및 석유제품	3.57	3.61	3.64	-0.084	-0.4	-0.379	-0.7
화학제품	4.41	4.52	4.69	-0.069	-0.2	-0.374	-0.6
비금속광물제품	0.00	0.00	0.00	0.000		0.000	
1차 금속제품	0.00	0.00	0.00	0.000		0.000	
금속가공제품	0.20	0.20	0.21	-0.008	-0.7	-0.019	-0.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25	1.19	1.18	-0.073	-1.0	-0.182	-1.0
전기장비	1.13	1.11	1.17	-0.047	-0.7	-0.110	-0.7
기계 및 장비	0.00	0.00	0.00	0.000		0.000	
운송장비	3.60	3.03	3.36	-0.458	-2.2	-0.547	-1.1
기타 제조업제품	3.06	2.71	2.86	-0.308	-1.7	-0.461	-1.1
제조업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98	0.98	1.01	-0.026	-0.4	-0.101	-0.7
전력, 가스 및 증기	3.43	3.62	3.70	0.011	0.1	-0.262	-0.5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84	0.87	0.88	-0.006	-0.1	-0.077	-0.6
건설	1.04	1.11	1.15	0.011	0.2	-0.063	-0.4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00	0.00	0.00	0.000	0.0	0.000	0.0
운송서비스	2.92	2.82	2.90	-0.153	-0.9	-0.355	-0.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3.96	13.46	13.76	-0.737	-0.9	-1.752	-0.9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3.29	3.36	3.36	-0.063	-0.3	-0.353	-0.7
금융 및 보험서비스	3.05	3.25	3.24	0.029	0.1	-0.261	-0.6
부동산서비스	2.62	2.50	2.58	-0.155	-1.0	-0.325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0	0.00	0.00	0.000	0.0	0.000	0.0
사업지원서비스	0.00	0.00	0.00	0.000	0.0	0.000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	0.00	0.00	0.000	0.0	0.000	0.0
교육서비스	14.19	13.76	11.57	-0.697	-0.8	-3.034	-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92	6.44	6.59	0.135	0.4	-0.345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4.50	4.57	4.62	-0.097	-0.3	-0.466	-0.7
기타 서비스	5.80	5.79	6.06	-0.185	-0.5	-0.551	-0.6
기타	0.00	0.00	0.00	0.000	0.0	0.000	0.0

주 : 부산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장래가구추계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소비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가계 소비 항목의 비중 변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인구구조 변화는 소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이는 산업수요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적 구조 전환이 예상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지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 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추정하였다.

<표 7>은 가장 최근 작성된 2022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가구의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2025~2050년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 분석에서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라 연령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고, 가계동향조사의 94개 세부 소비지출 항목을 산업연관표상의 33개 대분류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전력·가스 및 증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소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같은 건강·복지 관련 산업군은 절대 소비 지출 규모는 감소하더라도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수요 확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식료품, 주거 관련 서비스, 필수재 중심 산업군도 비중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생애주기상 기초생활 유지 중심의 소비 성향이 강해지는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반면, 교육, 음식·숙박 등 선택적 소비에 기반한 산업군은 절대규모뿐 아니라 비중 측면에서도 축소가 예상된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와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부산과 같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감소는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 유발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그 추정치는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전 산업에서 유발효과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35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생산 유발효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지만,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2025~2050년으로 기간을 확장하면, 서비스업의 생산 유발효과 감소 폭은 제조업보다 더 커지며, 특히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업 축소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모든 기간에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가장 커, 학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수요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산에서 자영업 사업체 비중이 높은 음식 및 숙박업 역시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해 고용 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지역 자영업 생태계의 고용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표 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단위 : 조 원, 천 명)

	증감(2025-2035)			증감(2025-2050)		
	생산 (조원)	부가가치 (조원)	취업 (천명)	생산 (조원)	부가가치 (조원)	취업 (천명)
전산업	-6.13	-15.81	-29.43	-21.95	-8.75	-124.70
농림수산물	0.06	0.03	1.26	-0.70	-0.33	-13.70
광산품	0.00	0.00	-0.01	-0.02	-0.01	-0.04
제조업	-3.00	-0.69	-6.09	-8.63	-2.03	-16.60
음식료품	-0.22	-0.05	-0.44	-1.95	-0.44	-3.83
섬유, 가죽제품	-0.39	-0.06	-0.88	-0.91	-0.15	-2.06
목재 및 종이, 인쇄	-0.11	-0.03	-0.30	-0.35	-0.09	-0.95
석탄 및 석유제품	-0.18	-0.03	-0.01	-0.74	-0.14	-0.04
화학제품	-0.31	-0.07	-0.35	-1.20	-0.28	-1.38
비금속광물제품	-0.02	0.00	-0.04	-0.06	-0.02	-0.14
1차 금속제품	-0.14	-0.03	-0.09	-0.27	-0.05	-0.18
금속가공제품	-0.11	-0.03	-0.30	-0.27	-0.08	-0.7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16	-0.05	-0.17	-0.44	-0.15	-0.47
전기장비	-0.16	-0.03	-0.23	-0.39	-0.08	-0.57
기계 및 장비	-0.04	-0.01	-0.08	-0.10	-0.03	-0.24
운송장비	-0.67	-0.12	-0.86	-0.91	-0.16	-1.16
기타 제조업제품	-0.34	-0.09	-1.63	-0.58	-0.15	-2.75
제조업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15	-0.07	-0.71	-0.45	-0.21	-2.13
전력, 가스 및 증기	-0.10	0.00	-0.05	-0.73	-0.02	-0.37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05	-0.02	-0.21	-0.22	-0.10	-0.98
건설	-0.01	-0.01	-0.08	-0.14	-0.06	-0.80
서비스업	-3.03	-1.54	-24.25	-11.47	-6.20	-92.2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26	-0.14	-1.96	-0.88	-0.47	-6.68
운송서비스	-0.29	-0.12	-2.10	-0.81	-0.33	-5.8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81	-0.26	-7.05	-2.04	-0.66	-17.7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16	-0.08	-0.61	-0.74	-0.38	-2.86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9	-0.06	-0.28	-0.76	-0.48	-2.23
부동산서비스	-0.25	-0.17	-0.52	-0.64	-0.45	-1.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16	-0.09	-0.88	-0.59	-0.32	-3.18
사업지원서비스	-0.10	-0.06	-0.99	-0.37	-0.23	-3.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	0.00	-0.04	-0.02	-0.02	-0.17
교육서비스	-0.70	-0.48	-7.27	-3.05	-2.07	-31.6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13	0.07	1.27	-0.38	-0.22	-3.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11	-0.06	-0.85	-0.54	-0.29	-4.02
기타 서비스	-0.21	-0.09	-2.98	-0.64	-0.28	-9.10
기타	-0.01	0.00	0.00	-0.03	0.00	0.00

주 : 민간소비지출 변화에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저자 작성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와 산업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이러한 인구 및 소비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취업자 수의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변화, 자영업자의 개업 및 폐업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자영업 구조 및 특성

가. 자영업 관련 통계

<표 9> 부산시 연령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연도	총 취업자수	생산가능인구	청년층 ¹⁾	고령층 ²⁾
2010	1,599	1,526	396	73
2011	1,615	1,541	389	75
2012	1,660	1,569	416	91
2013	1,670	1,562	402	108
2014	1,693	1,577	408	116
2015	1,684	1,567	407	118
2016	1,686	1,556	410	130
2017	1,685	1,552	398	133
2018	1,657	1,514	381	143
2019	1,676	1,519	387	156
2020	1,640	1,460	358	180
2021	1,657	1,460	358	197
2022	1,679	1,468	363	211
2023	1,691	1,468	374	224
2024	1,688	1,445	381	243

주 : 1) 20-34세

2) 65세 이상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표 9>에 따르면, 부산시의 총 취업자 수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60만~17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며 외형적으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취업자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내부 구조는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취업자 수는 201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청년층(20-34세) 취업자 수의 감소 시점과도 일치한다. 반면, 고령층(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0년 7만 3천 명에서 2024년 24만 3천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또는 재진입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부산의 노동시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총 취업자 수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구성은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층의 증가라는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층의 생계형 노동 참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표 10> 부산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연도	계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2010	1,599	436	361	106	255	74	1,164	647	362	155
2011	1,615	429	354	99	255	75	1,186	666	367	154
2012	1,660	438	365	103	262	73	1,222	693	398	130
2013	1,670	435	373	102	271	62	1,235	710	399	127
2014	1,693	428	368	108	261	60	1,265	755	396	115
2015	1,684	404	346	115	231	59	1,280	775	390	116
2016	1,686	381	329	108	221	52	1,305	813	383	108
2017	1,685	367	315	102	213	52	1,317	847	357	113
2018	1,657	355	309	101	208	45	1,302	891	309	103
2019	1,676	383	335	107	227	49	1,292	916	272	104
2020	1,640	402	346	111	235	56	1,238	873	272	93
2021	1,657	426	370	95	276	56	1,231	847	301	82
2022	1,679	405	355	83	272	50	1,274	858	339	77
2023	1,691	385	344	81	263	41	1,307	884	368	55
2024	1,688	346	310	76	234	37	1,342	939	356	46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조사」, 통계청

<표 10>은 같은 기간 동안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증가가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자영업자 수는 시기별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이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장기적 축소가 뚜렷하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변동을 주도하며 등락을 반복해왔고,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산의 자영업이 단순히 규모가 줄어들기보다는 고용형·가족형 자영업이 축소되고, 영세한 단독형 자영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자영업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 %, %p)

	전국			부산		
	2010	2020	변화	2010	2020	변화
15-34세	10.31	10.25	-0.07	10.08	10.38	0.30
35-64세	75.99	73.39	-2.60	82.95	75.39	-7.56
65세 이상	13.70	16.36	2.66	6.97	14.22	7.26

자료 : 「인구총조사」, 통계청

<표 11>은 전국과 부산의 자영업자 연령별 구성의 2010년 대비 2020년 변화를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두 지역 모두 연령별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변화 속도를 보면 부산의 고령화를 체감할 수 있다. 중장년층(35-64세)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국에서 2.60%p 감소한 반면, 부산에서는 7.56%p나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의 고령(65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2.66%p 증가한 것에 비해, 부산은 세 배 가까이 되는 7.26%p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 자영업 시장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12> 부산시 자영업 개·폐업률¹⁾ 및 자영업자 비중²⁾ 추이

(단위 : %)

연도	개업률	폐업률	자영업자 비중
2011	14.1	10.9	21.9
2012	13.3	15.8	22.0
2013	13.1	15.2	22.3
2014	13.7	16.9	21.7
2015	13.9	15.6	20.5
2016	12.2	12.5	19.5
2017	12.1	12.9	18.7
2018	11.9	13.7	18.6
2019	13.7	15.5	20.0
2020	16.9	11.4	21.1
2021	18.3	20.0	22.3
2022	17.3	17.5	21.1
2023	17.1	21.3	20.3

주 : 1) 개업률·폐업률은 전국사업체조사(사업체10 패널)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2020년 모집단 전환(조사→등록)에 따른 급증을 고려해 2019년 기준 누적 보정 분모를 사용함

2)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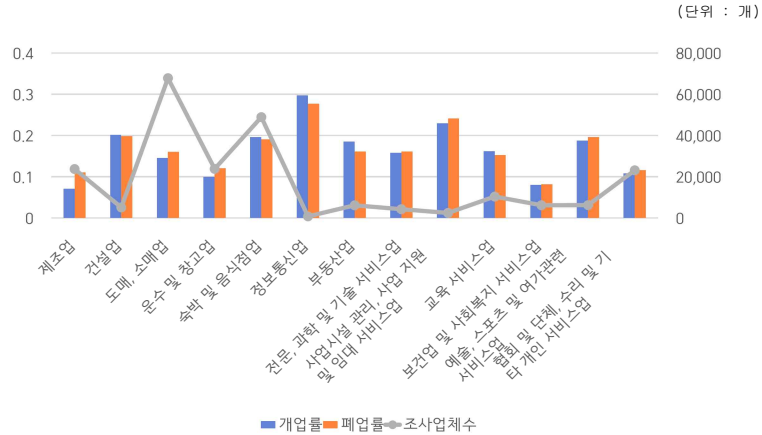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2>는 부산 지역의 자영업³⁾ 개업률과 폐업률의 장기적 추이를 나타낸다. 자영업 개업률은 2011년 14.1%에서 2023년 17.1%로 소폭 증가한 반면, 폐업률은 2020년 이후 증가하여 2023년에는 21.3%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창업 이후 일정 기간 내 시장 퇴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구 감소, 소비 기반 약화,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정태적 지표이며, 개업률·폐업률은 자영업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진입과 퇴출을 보여주는 동태적 지표라는 점에서 양자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산의 자영업 시장은 지난 10여

3)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사업체 수 중 약 80%가량이 자영업 사업체(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1년의 경우 347만여 개 사업체 중 287만여 개의 사업체가 자영업 사업체(82.7%)였고, 2023년의 경우 전체 625만여 개의 사업체 중 약 490만여 개의 사업체가 자영업 사업체(7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 동안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하는 구조가 이어졌으며, 시기별로 등락을 보여온 자영업자 비중은 최근 들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부산시 산업별 자영업 개업률 및 폐업률



주 : 2023년 기준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그림 6>은 산업별로 개업률과 폐업률, 조사 업체 수를 함께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제조업은 개업률(7.1%)과 폐업률(11.0%)이 모두 낮은 편이며, 조사된 사업체 수는 약 2.4만 개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이는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생존률이 높은 산업임을 시사한다. 반면, 도·소매업은 개업률(14.6%)과 폐업률(16.0%)이 유사한 수준이고 사업체 수는 약 6.8만 개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아 여전히 대표적인 경쟁과밀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약 4.9만 개로도·소매업 다음으로 사업체 수가 많고 개업률과 폐업률이 각각 19.6%, 19.1%로 모두 평균을 상회한다. 이는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경쟁 강도가 높아 장기 생존이 어려운 산업 구조임을 보여준다. 즉, 부산의 자영업은 절대 규모 면에서 여전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개·폐업률과 맞물려 과밀 경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부산의 구·군별 개·폐업률

(단위 : %, 명)

	개업률	폐업률	고령인구비율	전체인구
총구	11.5	14.2	32.4	37,537
서구	10.7	13.9	29.5	103,188
동구	11.4	13.9	29.9	85,911
영도구	10.2	11.5	33.4	103,737
부산진구	14.5	15.5	23.1	359,281
동래구	15.6	17.6	22.2	274,370
남구	15.4	17.0	24.2	254,498
북구	15.1	15.4	23.4	267,692
해운대구	17.7	17.3	22.2	376,404
사하구	13.1	14.0	24.8	292,491
금정구	14.6	16.3	26.8	209,932
강서구	17.4	15.4	15.0	142,789
연제구	16.2	16.4	23.0	212,589
수영구	16.8	16.9	25.6	171,918
사상구	10.2	12.5	24.4	198,635
기장군	20.4	17.2	19.5	175,626
부산 평균	14.4	15.3	23.9	3,266,598
전국 평균	15.2	15.3	20.0	51,217,221

주 : 1) 개·폐업률은 2011~2023년 평균임
 2) 고령인구비율과 전체인구는 2024년 기준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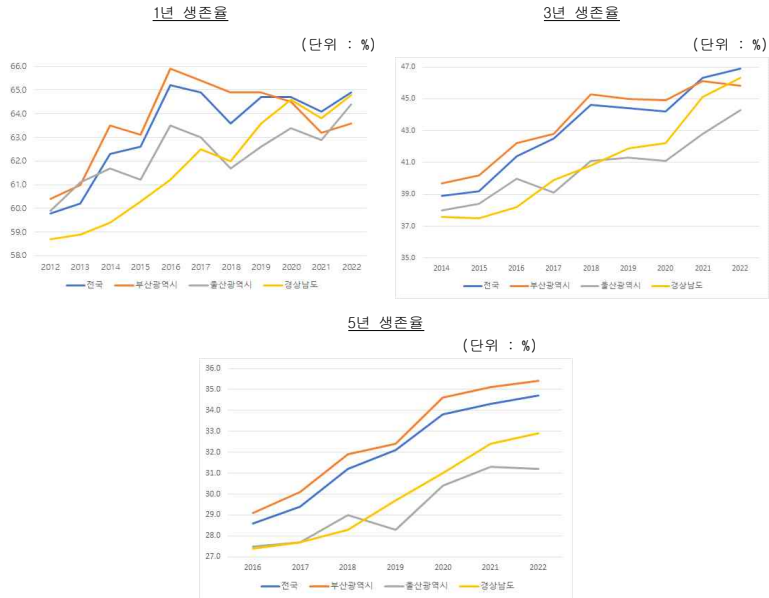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부산 지역 개인사업체 평균 개업률과 폐업률은 각각 14.4%와 15.3%로 개업률의 경우 전국 평균(15.2%)보다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은 구·군별 개업률 및 폐업률을 비교한 자료로, 지역 간 자영업 동학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 지역은 인구 규모가 10만 명 안팎으로 작고, 고령인구 비율은 30% 내외이다. 이들 지역은 개업률이 부산 평균보다 2.9-4.2%p 낮고, 폐업률 또한 부산 평균보다 1.1-3.8%p 낮아 진입과 퇴출 모두 둔화된 특징을 보인다. 즉, 인구 고령화와 인구 기반 축소가 자영업 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사상구와 사하구 역시 개·폐업률이 낮은 지역으로, 원도심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율이 24%대로 높아 자영업 진입·퇴출 모두 활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반면, 해운대구·수영구·연제구·기장군 등 최근 개발과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를 보이며, 고령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지역은 개업률과 폐업률이 모두 부산 평균을 상회하며, 자영업 진입이 활발하지만, 그만큼 경쟁 강도도 높아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군에서 폐업률이 개업률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층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 심화, 1

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의 소비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 기반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 7> 부산시 신생기업 생존율 추이: 전국·울산·경남과의 비교



자료 :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개업률과 폐업률의 비교만으로는 자영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생기업 생존율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신생기업 생존율은 개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유지되는 기업 비중을 나타내며, 지역 경제의 사업체 유지 역량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⁴⁾

<그림 7>은 부산광역시의 1년, 3년, 5년 생존율을 전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부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단기 생존율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 1년 생존율의 경우 부산은 2019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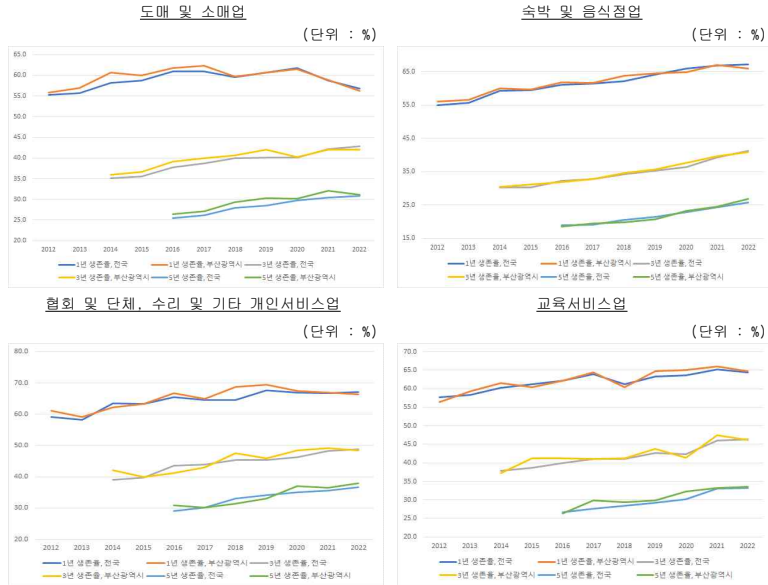
4) 다만, 본 통계는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가 모두 포함된 결과이므로 개인사업자 기준 생존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을 소폭 하회하기 시작했다(2020년: 전국 64.7%, 부산 64.5%).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하락했지만 부산의 낙폭이 가장 컸으며, 2022년에는 울산·경남이 부산을 추월하였다(2022년: 부산 63.6%, 울산 64.4%, 경남 64.8%). 3년 생존율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관측된다. 3년 생존율 또한 2018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둔화되며 2021년 전국 평균을 소폭 하회하였다(2021년: 전국 46.3%, 부산 46.1%). 특히 경남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2022년에는 부산을 앞질렀고(2022년: 부산 45.8%, 경남 46.3%), 울산(44.3%) 역시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부산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반면, 5년 생존율의 경우에는 부산이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며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1년 및 3년 생존율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20년 전후로 개업한 기업체들의 생존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기업이 아직 5년 생존율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부산의 5년 생존율 또한 전국 평균에 역전당할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의 신생기업 생존율 추이는 지역 자영업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단기 충격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전후 창업 기업들의 낮은 단기 생존율은 향후 5년 생존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자영업 기반의 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청년층 창업 기반의 약화와 고령층의 소비력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중기 생존율 하락은 지역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 자영업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팬데믹 시기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후 관리, 청년 창업자의 정착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산업 전환기에 적합한 업종 전환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온 부산의 장기 생존율마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8> 부산시 및 전국 신생기업 생존율 추이: 소비자 서비스업



자료 :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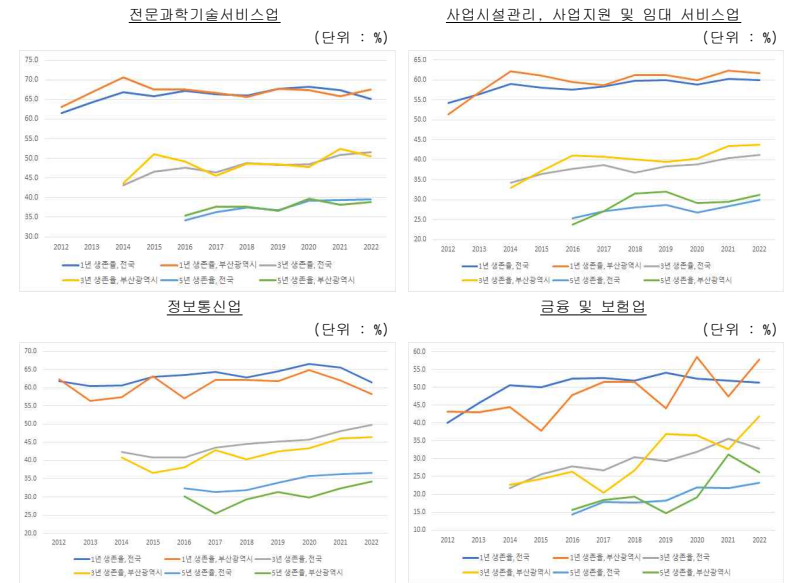
<그림 8>은 부산의 주요 소비자 서비스업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다. 도매 및 소매업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1년 생존율의 경우 2018년까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보였으나, 2019년 이후 격차가 줄어들었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는 도소매업 산업 자체의 생존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동시에 부산 지역의 전국 대비 우위를 상실하였다. 3년 생존율에서도 2021년 이후 부산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유통 의존도가 큰 부산 지역 상권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 온라인·플랫폼 기반 유통으로의 전환 속도가 더딘 점, 고령화로 인한 내수 수요 위축, 상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과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 생존율로 경쟁력을 보였던 부산 도소매업이 팬데믹 이후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 것이다.

숙박·음식점업은 1년 생존율이 60%대 중후반으로 안정적이지만, 3년은 40% 전후, 5년은 25% 내외로 장기적 지속성이 낮다. 숙박·음식점업은 단기적으로는 창업 활발성과 초기 시장 진입의 용이성 덕에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정체, 경쟁 과밀, 인건비 및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성이 매우 낮은 업종임을 보여준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인다.

종합적으로, 소비자 서비스업 전반은 단기 생존율이 6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3년 이후 생존율은 절반 이하로 급락하여 장기적 지속성이 취약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소매업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산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부산 소비자 서비스업이 활발한 창업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제약(수요 정체, 경쟁 과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 부산시 및 전국 신생기업 생존율 추이: 생산자 서비스업



자료 :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그림 9>는 부산시 생산자 서비스업의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전국과 유사하거나 일부 연도에는 부산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지식·기술 기반 창업의 정착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과거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최근 들어 부산이 전

국 수준을 상회하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고용지원 및 아웃소싱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업은 전반적으로 전국보다 낮은 생존율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은 전국과 부산 모두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절대 수준이 낮아 창업 친화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생산자 서비스업은 업종별 편차가 존재하나, 3년 이후의 중기 생존율에서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에는 창업 초기 정착 및 성장 지원,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지역 수요를 활용한 확산·효율화 정책, 금융 및 보험업에는 창업 장려보다는 기존 기업의 안정성 강화와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지식·기술 기반 산업으로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표 14> 부산시 구·군별 자영업 생존율

(단위 : %)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중구	78.1	60.2	48.3	40.4	34.0
서구	79.0	62.5	51.5	43.9	37.6
동구	78.6	60.7	49.3	41.3	34.8
영도구	81.6	65.5	54.9	47.4	40.5
부산진구	76.7	58.4	47.1	38.7	32.6
동래구	76.4	57.8	45.9	37.4	31.0
남구	75.7	57.4	56.9	37.3	31.1
북구	77.9	60.4	49.7	41.6	35.0
해운대구	76.3	57.0	45.7	37.5	31.4
사하구	79.0	61.3	50.2	42.0	35.8
금정구	77.2	58.7	47.4	39.5	33.1
강서구	80.4	63.9	52.5	44.2	37.7
연제구	77.0	58.2	46.9	38.5	32.4
수영구	76.1	57.1	45.6	38.7	31.8
사상구	79.9	63.0	52.2	44.3	38.2
기장군	78.9	60.7	49.3	40.8	34.3
부산 평균	78.1	60.2	49.6	44.6	34.5

주 : 1년 생존율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년 생존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3년 생존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4년 생존율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년 생존율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을 나타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표 14>는 부산시 구·군별 자영업 생존율을 제시한다. 부산 전체의 사업체는 창업 후 1년 차에 약 78%가 생존하였으나, 2년 차에는 6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3년 차 49.6%, 4년 차 44.6%, 5년 차에는 34.5%만이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 내 구·군별로도 생존률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별 자영업 여건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사상구와 강서구 등은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사상구는 5년 생존율이 38.2%로 부산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강서구 또한 37.7%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화 및 물류 기반이 발달해 있어 일정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동래구는 5년 생존율이 31.0%에 그쳐 부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남구와 해운대구도 각각 31.1%, 31.4%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수영구 역시 31.8%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의 창업 생태계가 창업 초기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화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 생태계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의 양적 규모나 단순 비율 이외에도 특정 업종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자영업 밀도 수준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의 방향성과 자영업 과잉집적, 향후 정책 지원분야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지역별 자영업의 상대적 특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 또는 직종이 전국 또는 상위 지역 전체에 비해 얼마나 상대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어떤 업종이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혹은 적게 존재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지역 특화산업 분석, 산업정책 수립, 자영업 구조 진단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입지계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LQ_{ir} = \left(\frac{E_{ir}}{E_r}\right) / \left(\frac{E_i}{E}\right)$$

여기서 E_{ir} 은 지역 r 에서 업종 i 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체 수, E_r 은 지역 r 의 전체 개인사업체 수, E_i 는 전체 지역에서의 업종 i 의 개인사업체 수, E 는 전체 개인사업체 수이다. 이 지표는 해당 업종의 지역 내 비중이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한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지역 내에서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거나 특화되지 않은 업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과 같은 때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의 특징은, 단순한 절대 수치가 아닌 비율 기반의 상대 지표라는 점으로 지역 규모에 무관하게 특

정 산업의 중요성, 비중, 정책 개입 필요성 등을 비교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 15>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산업 중분류 기준에 맞춰 부산시 자영업의 산업별 입지계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크게 전체 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제조업의 경우 산업 중분류 기준 10~33에 속하며 전통적인 산업들이 대체로 속한다. 분석 기간동안 산업별 평균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많은 제조업 산업에서 자영업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산업 중분류에 해당하는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Ind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Ind1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Ind22), 1차 금속 제조업(Ind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Ind25), 전기장비 제조업(Ind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Ind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Ind31) 등이 전국 대비 높은 자영업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Ind15)의 경우 2023년 2.43으로 전국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 제조 자영업이 여전히 부산 자영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임을 보여준다. 또한, 1차 금속 제조업(Ind24)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Ind25) 등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기초 금속 및 기계부품 제조에 활발히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Ind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Ind16) 등과 같은 일부 산업은 자영업 입지계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종 포화, 수요 감소, 기술 변화 등 시장의 구조 변화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비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들의 자영업 입지계수를 살펴본다. 수상 운송업(Ind50)의 경우 부산의 항만 도시 특성과 맞물려 오랫동안 높은 입지계수를 유지해 왔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Ind52)의 경우 2.6 내외의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자영업 기반 물류 산업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매 및 상품 중개업(Ind46)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Ind47) 역시 각각 1.28, 1.03으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환경 정화 및 복원업(Ind39)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자원순환과 환경 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자영업 진입 확대를 반영한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Ind34)도 2016년 이후 1.4 이상으로 유지되며, 고속철 정비 기반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할 수 있다. 반면, 정보통신과 금융 등 고기술·고자본 산업군은 전반적으로 자영업의 진입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Ind62), 정보서비스업(Ind63)은 2023년 기준 각각 0.61, 0.62로, 수도권 중심의 법인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낮은 상태다. 금융업(Ind64) 및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Ind66)은 전체 기간 중 1 이상을 기록했으나, 이는 대형 금융기관이 아닌 영세 금융 자영업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표 15>를 통해 확인된 부산시 자영업의 산업별 입지계수 변화는 지역 자영업 구조의 지속성과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의복, 금속, 기계 관련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특화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 자영업 생태계의 뿌리가 여전히 생산 기반 생계형 산업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부 제조업에서는 입지계수가 하락하며 산업 쇠퇴 또는 자영업 철수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물류, 도소매 업종의 안정적인 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은 자영업 진입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산업 간 격차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부산 자영업이 전통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일부 분야에서는 새로운 진입과 확장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산업별 입지계수는 이러한 구조적 이질성과 변화를 진단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5> 부산시 산업별 입지계수

연도	Ind7	Ind10	Ind11	Ind13	Ind14	Ind15	Ind16	Ind17
2010	-	0.90	0.18	1.02	1.24	2.81	1.03	0.83
2011	0.00	0.92	0.17	1.02	1.20	2.77	1.04	0.82
2012	0.01	0.92	0.21	1.01	1.19	2.61	1.04	0.83
2013	0.00	0.91	0.20	0.99	1.18	2.61	1.02	0.78
2014	0.01	0.90	0.22	0.97	1.15	2.44	1.01	0.75
2015	0.02	0.89	0.17	0.96	1.12	2.33	0.96	0.75
2016	0.06	0.88	0.16	0.95	1.12	2.38	0.97	0.76
2017	0.06	0.88	0.19	0.96	1.13	2.31	0.96	0.75
2018	0.07	0.89	0.16	0.97	1.11	2.33	0.96	0.72
2019	0.06	0.88	0.25	0.96	1.11	2.29	0.89	0.73
2020	0.07	0.88	0.32	0.91	1.08	2.11	0.88	0.73
2021	0.08	0.88	0.34	0.93	1.08	2.18	0.86	0.73
2022	0.08	0.88	0.36	0.95	1.08	2.30	0.86	0.72
2023	0.07	0.91	0.47	1.05	1.15	2.43	0.86	0.76
연도	Ind18	Ind19	Ind20	Ind21	Ind22	Ind23	Ind24	Ind25
2010	0.93	0.37	0.63	0.56	1.06	0.47	1.56	1.28
2011	0.94	0.39	0.62	0.68	1.04	0.47	1.61	1.28
2012	0.87	0.33	0.64	0.73	1.06	0.45	1.50	1.29
2013	0.87	0.34	0.59	0.78	1.06	0.48	1.49	1.29
2014	0.86	0.18	0.62	0.99	1.04	0.48	1.59	1.32
2015	0.87	0.17	0.67	0.96	1.04	0.50	1.59	1.35
2016	0.88	0.17	0.67	1.08	1.04	0.47	1.55	1.34
2017	0.89	0.19	0.65	0.97	1.05	0.45	1.50	1.33
2018	0.90	0.16	0.62	0.91	1.04	0.46	1.53	1.34
2019	0.92	0.16	0.64	0.86	1.02	0.48	1.57	1.35
2020	0.93	0.18	0.66	0.76	1.01	0.48	1.57	1.35
2021	0.95	0.19	0.66	0.91	1.03	0.48	1.59	1.37
2022	0.97	0.21	0.62	0.89	1.05	0.47	1.57	1.39
2023	1.04	0.27	0.51	1.25	1.14	0.46	1.66	1.52
연도	Ind26	Ind27	Ind28	Ind29	Ind30	Ind31	Ind32	Ind33
2010	0.35	0.84	1.17	1.31	1.06	1.63	1.08	0.96
2011	0.33	0.90	1.21	1.30	1.08	1.67	1.09	0.96
2012	0.31	0.88	1.22	1.31	1.10	1.85	1.09	0.95
2013	0.30	0.87	1.22	1.31	1.05	1.84	1.09	0.94
2014	0.31	0.85	1.24	1.27	1.07	1.72	1.08	0.94
2015	0.34	0.84	1.27	1.25	1.02	1.91	1.05	0.92
2016	0.32	0.86	1.25	1.25	1.02	1.66	1.02	0.93
2017	0.35	0.86	1.24	1.26	1.04	1.59	1.02	0.95
2018	0.35	0.86	1.23	1.27	1.03	1.50	1.02	0.97
2019	0.35	0.91	1.26	1.30	1.02	1.57	1.00	0.97
2020	0.35	0.89	1.22	1.29	1.04	1.62	1.00	0.95
2021	0.34	0.96	1.23	1.31	0.99	1.77	0.98	0.94
2022	0.35	0.96	1.25	1.32	0.97	1.78	0.98	0.97
2023	0.34	1.09	1.42	1.51	1.01	1.52	1.09	1.03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Ind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Ind10:식품품 제조업, Ind11:음료 제조업, Ind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Ind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Ind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Ind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Ind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Ind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Ind19: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Ind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Ind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Ind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Ind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Ind24:1차 금속 제조업, Ind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Ind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nd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nd28:전기장비 제조업, Ind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nd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Ind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Ind32:가구 제조업, Ind33:기타 제품 제조업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5> 부산시 산업별 입지계수

연도	Ind34	Ind35	Ind36	Ind37	Ind38	Ind39	Ind41	Ind42
2010	-	0.42	6.78	0.74	0.85	1.51	0.64	0.88
2011	-	-	6.89	0.55	0.83	1.62	0.67	0.90
2012	-	0.00	-	0.60	0.84	1.00	0.64	0.93
2013	-	0.32	-	0.65	0.85	1.08	0.62	0.93
2014	-	0.37	-	0.66	0.78	1.59	0.60	0.94
2015	-	0.19	-	0.59	0.79	1.93	0.55	0.97
2016	1.46	0.18	-	0.56	0.79	1.71	0.57	0.99
2017	1.48	0.23	-	0.55	0.78	1.13	0.53	1.00
2018	1.47	0.19	-	0.65	0.78	2.61	0.49	1.02
2019	1.50	0.24	-	0.62	0.75	1.66	0.47	1.01
2020	1.50	0.05	-	0.63	0.73	1.07	0.43	0.93
2021	1.54	0.03	-	0.64	0.72	1.01	0.37	0.88
2022	1.55	0.03	-	0.57	0.70	1.93	0.36	0.86
2023	1.63	0.04	-	0.55	0.69	2.60	0.29	0.81
연도	Ind45	Ind46	Ind47	Ind49	Ind50	Ind52	Ind55	Ind56
2010	0.88	1.17	1.06	0.89	3.01	2.69	0.66	0.98
2011	0.88	1.18	1.06	0.87	3.11	2.68	0.65	0.98
2012	0.88	1.20	1.05	0.87	3.21	2.62	0.63	0.98
2013	0.87	1.18	1.06	0.86	3.09	2.58	0.62	0.98
2014	0.87	1.16	1.06	0.85	3.03	2.52	0.60	0.98
2015	0.87	1.15	1.05	0.88	3.16	2.56	0.59	0.97
2016	0.87	1.17	1.06	0.86	2.80	2.60	0.57	0.98
2017	0.85	1.18	1.06	0.84	2.55	2.62	0.55	0.98
2018	0.85	1.20	1.07	0.80	2.88	2.60	0.53	0.98
2019	0.84	1.21	1.07	0.79	2.79	2.60	0.52	0.99
2020	0.85	1.19	1.05	0.90	2.75	2.57	0.52	0.98
2021	0.87	1.23	1.05	0.90	2.40	2.60	0.49	0.99
2022	0.88	1.26	1.05	0.92	1.99	2.60	0.48	1.00
2023	0.88	1.28	1.03	0.95	1.07	2.63	0.48	1.00
연도	Ind58	Ind59	Ind60	Ind61	Ind62	Ind63	Ind64	Ind66
2010	0.47	0.86	0.61	1.08	1.13	0.61	1.70	0.98
2011	0.48	0.81	0.33	1.19	1.09	0.51	1.61	1.05
2012	0.51	0.71	0.51	1.20	1.06	0.62	1.51	1.06
2013	0.60	0.76	0.54	1.18	1.04	0.68	1.55	1.06
2014	0.59	0.75	0.37	1.22	1.08	0.63	1.58	1.01
2015	0.52	0.59	0.57	1.40	1.02	0.64	1.61	1.03
2016	0.59	0.59	0.18	1.42	1.03	0.79	1.64	0.99
2017	0.61	0.60	0.08	1.34	1.03	0.75	1.60	0.99
2018	0.68	0.61	0.30	1.35	0.94	0.77	1.50	1.05
2019	0.65	0.64	0.16	1.36	0.86	0.69	1.46	1.05
2020	0.60	0.55	0.33	1.31	0.71	0.65	1.45	1.10
2021	0.54	0.55	0.58	1.24	0.62	0.60	1.40	1.42
2022	0.52	0.59	0.55	1.17	0.63	0.63	1.29	1.53
2023	0.46	0.70	0.70	1.16	0.61	0.62	1.34	1.86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Ind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In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Ind36:수도업, Ind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Ind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Ind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Ind41:중합 건설업, Ind42:전문직업 공사업, Ind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Ind46:도매 및 상품 증개업, Ind47:소매업; 자동차 제외, Ind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Ind50:수상 운송업, Ind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nd55:숙박업, Ind56:음식점 및 주점업, Ind58:출판업, Ind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Ind60: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Ind61:우편 및 통신업, Ind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Ind63:정보서비스업, Ind64:금융업, Ind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5> 부산시 산업별 입지계수

연도	Ind68	Ind70	Ind71	Ind72	Ind73	Ind74	Ind75	Ind76
2010	0.68	0.98	0.96	0.89	0.82	0.90	1.01	1.05
2011	0.75	0.88	0.97	0.90	0.81	0.90	1.00	1.01
2012	0.80	0.85	0.96	0.93	0.82	0.93	0.95	0.98
2013	0.83	0.79	0.98	0.93	0.83	0.91	0.91	0.99
2014	0.87	0.87	0.98	0.97	0.83	0.93	0.90	1.02
2015	0.89	0.73	0.97	0.98	0.84	0.91	0.88	0.98
2016	0.91	0.73	0.99	0.98	0.84	0.95	0.89	1.01
2017	0.93	0.75	1.02	0.95	0.85	0.96	0.92	1.00
2018	0.92	0.91	1.01	0.97	0.88	0.98	0.91	0.98
2019	0.92	0.71	0.99	0.96	0.90	0.94	0.88	0.96
2020	0.92	0.68	0.94	0.98	0.84	0.92	0.91	0.95
2021	0.95	0.68	0.96	0.93	0.88	0.93	0.84	0.94
2022	0.95	0.68	0.96	0.95	0.89	0.88	0.88	0.99
2023	0.96	0.61	0.94	0.92	0.83	0.85	0.81	0.94
연도	Ind85	Ind86	Ind87	Ind90	Ind91	Ind95	Ind96	
2010	0.93	0.97	0.63	1.06	0.89	1.08	1.06	
2011	0.94	0.98	0.62	1.07	0.88	1.08	1.07	
2012	0.95	0.99	0.58	1.01	0.87	1.09	1.06	
2013	0.95	1.01	0.58	0.95	0.87	1.10	1.06	
2014	0.96	1.02	0.59	0.92	0.88	1.11	1.07	
2015	0.96	1.02	0.62	0.86	0.88	1.10	1.07	
2016	0.96	1.02	0.66	0.91	0.87	1.05	1.06	
2017	0.96	1.03	0.67	0.94	0.86	1.05	1.06	
2018	0.97	1.04	0.69	0.91	0.85	1.05	1.06	
2019	0.98	1.05	0.71	0.96	0.83	1.06	1.06	
2020	0.97	1.05	0.88	0.90	0.83	1.04	1.05	
2021	0.98	1.06	0.89	0.93	0.84	1.06	1.05	
2022	0.98	1.08	0.91	0.89	0.85	1.06	1.05	
2023	0.99	1.09	0.92	0.87	0.85	1.07	1.04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Ind68:부동산업, Ind70:연구개발업, Ind71:전문 서비스업, Ind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Ind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Ind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Ind75:사업 지원 서비스업, Ind76:임대업; 부동산 제외, Ind85:교육 서비스업, Ind86:보건업, Ind87:사회복지 서비스업, Ind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nd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Ind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Ind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산업 집중도(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앞서 살펴본 산업별 자영업 입지계수(LQ) 분석은 부산시 전체 수준에서 자영업의 산업 특화 구조를 진단했다. 그러나 자영업 생태계는 시군구 단위에서도 상이한 산업 구조와 집중도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자영업의 산업 집중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업 집중도 지수(허핀달-허시만 지수, HHI)를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23년 까지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산업 중분류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산업 집중도(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는 특정 지역 내에서 자영업체가 얼마나 소수 산업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해당 지수 값이 클수록 특정 산업군에 자영업체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구·군-연도-산업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각 연도에서 해당 구·군 내 개인사업체 수를 전체 산업군에 대해 집계한 후, 각 산업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HHI를 산출하였다.

$$HHI = \sum_k \left(\frac{N_{ikt}}{N_{it}} \right)^2$$

여기서 i 는 구·군, t 는 연도, k 는 산업 중분류, N_{ikt} 는 구·군 i 의 연도 t 에서 산업 k 에 속한 개인사업체 수, N_{it} 는 구·군 i 의 연도 t 에서 전체 개인사업체 수를 의미한다. 산출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군에서 HHI는 0.08~0.2 수준으로 관측되며 이는 일부 산업에 자영업체가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으나 독점 수준이 아닌 중간 정도의 집중도와 낮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⁵⁾ 특히 부산시 중구, 동구, 수영구 등의 HHI가 상대적으로 높아 자영업 활동이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HHI를 기록하며 산업별 분포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 집중도의 차이는 고령화나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특정 산업군에 편중된 지역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자영업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산업구조의 집중도를 고려한 맞춤형 업종 전환 유도 및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된다.

5) 산업 조직 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해석값으로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시 이용하는 기준값이 있다. 2010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0~1사이로 구한 값에 10,000을 곱하여 HHI가 1,500 미만인 경우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 이상 2,500 이하인 경우 중간 정도로 집중된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도로 집중된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6> 부산시 구·군별 HHI

연도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2010	0.085	0.123	0.134	0.128	0.144	0.125	0.123	0.138
2011	0.085	0.122	0.132	0.127	0.143	0.124	0.123	0.138
2012	0.089	0.121	0.130	0.125	0.142	0.124	0.122	0.136
2013	0.088	0.120	0.131	0.125	0.142	0.124	0.122	0.137
2014	0.089	0.116	0.131	0.122	0.142	0.122	0.121	0.133
2015	0.087	0.115	0.132	0.122	0.144	0.122	0.121	0.131
2016	0.085	0.113	0.128	0.119	0.142	0.120	0.121	0.129
2017	0.084	0.113	0.127	0.117	0.143	0.121	0.122	0.128
2018	0.085	0.114	0.129	0.118	0.142	0.123	0.124	0.127
2019	0.083	0.116	0.131	0.120	0.143	0.124	0.126	0.128
2020	0.083	0.115	0.133	0.121	0.141	0.125	0.128	0.130
2021	0.083	0.117	0.139	0.124	0.146	0.128	0.127	0.133
2022	0.081	0.119	0.138	0.125	0.150	0.130	0.127	0.134
2023	0.086	0.128	0.143	0.136	0.159	0.135	0.133	0.141
연도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2010	0.098	0.117	0.136	0.137	0.111	0.113	0.188	0.126
2011	0.096	0.115	0.137	0.136	0.111	0.115	0.190	0.126
2012	0.096	0.113	0.137	0.135	0.110	0.113	0.192	0.126
2013	0.096	0.113	0.135	0.135	0.110	0.112	0.193	0.127
2014	0.096	0.110	0.132	0.133	0.107	0.111	0.192	0.123
2015	0.096	0.106	0.130	0.135	0.107	0.108	0.199	0.123
2016	0.095	0.106	0.132	0.131	0.105	0.104	0.192	0.119
2017	0.094	0.108	0.132	0.131	0.105	0.106	0.193	0.119
2018	0.093	0.109	0.133	0.134	0.106	0.106	0.195	0.119
2019	0.093	0.109	0.133	0.135	0.107	0.104	0.194	0.120
2020	0.092	0.109	0.135	0.136	0.109	0.104	0.187	0.122
2021	0.092	0.111	0.138	0.141	0.111	0.106	0.187	0.128
2022	0.090	0.111	0.136	0.140	0.113	0.106	0.190	0.128
2023	0.094	0.117	0.140	0.147	0.117	0.112	0.202	0.134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산업 집중도(HHI) 외에도 산업의 다양성 측면을 측정하는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HHI가 특정 산업에 자영업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엔트로피 지수는 자영업이 여러 산업에 얼마나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엔트로피 지수는 정보이론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하나의 지역 내에서 자영업체가 얼마나 다양한 산업에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엔트로피 지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된다.

$$Entropy = - \sum_k s_{ikt} \cdot \ln(s_{ikt})$$

여기서 s_{ikt} 는 구·군 i , 연도 t , 산업 k 의 자영업체 점유율로써 $\frac{N_{ikt}}{N_{it}}$ 와 같다. N_{ikt}

와 N_{it} 는 앞선 HHI에서와 같이 각각 구·군 i 의 연도 t 에서 산업 k 에 속한 개인사업체 수, 구·군 i 의 연도 t 에서 전체 개인사업체 수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산업별 점유율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높아지며, 한 산업에만 몰려 있을 경우에는 0에 수렴한다. 즉, 엔트로피 지수는 자영업 구조의 복잡성과 유연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부산시 내에서 엔트로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군에는 강서구,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자영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구, 중구, 수영구 등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트로피 지수와 HHI는 서로 상보적인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HHI가 산업 집중도를 측정한다면, 엔트로피 지수는 분산 정도를 측정하여 두 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산업군에 자영업체가 과도하게 몰려 있다면 HHI는 높고, 엔트로피 지수는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 지표는 향후 자영업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 다양성 제고, 구조 전환 정책 설계 등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7> 부산시 구·군별 엔트로피 지수

연도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2010	2.93	2.66	2.58	2.54	2.52	2.57	2.64	2.42
2011	2.93	2.68	2.60	2.56	2.53	2.58	2.64	2.43
2012	2.90	2.68	2.61	2.58	2.53	2.58	2.65	2.43
2013	2.92	2.68	2.60	2.58	2.54	2.57	2.65	2.42
2014	2.92	2.71	2.60	2.60	2.53	2.61	2.66	2.45
2015	2.93	2.72	2.60	2.60	2.52	2.57	2.65	2.47
2016	2.97	2.73	2.63	2.63	2.54	2.59	2.67	2.48
2017	2.97	2.73	2.63	2.64	2.53	2.59	2.65	2.49
2018	2.96	2.72	2.62	2.63	2.54	2.58	2.64	2.49
2019	2.97	2.71	2.62	2.62	2.54	2.56	2.63	2.48
2020	2.97	2.71	2.60	2.61	2.55	2.56	2.61	2.49
2021	2.97	2.70	2.56	2.60	2.53	2.54	2.61	2.47
2022	2.99	2.69	2.55	2.60	2.51	2.53	2.61	2.45
2023	2.94	2.62	2.51	2.49	2.48	2.47	2.54	2.38
연도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2010	2.77	2.67	2.47	2.50	2.68	2.65	2.30	2.51
2011	2.79	2.69	2.46	2.51	2.68	2.64	2.29	2.51
2012	2.80	2.71	2.46	2.53	2.69	2.64	2.28	2.52
2013	2.80	2.71	2.47	2.53	2.68	2.65	2.28	2.52
2014	2.80	2.74	2.49	2.54	2.70	2.66	2.29	2.55
2015	2.81	2.76	2.50	2.53	2.71	2.68	2.25	2.56
2016	2.83	2.77	2.51	2.56	2.73	2.74	2.29	2.59
2017	2.83	2.76	2.51	2.55	2.72	2.73	2.28	2.58
2018	2.85	2.75	2.50	2.54	2.71	2.73	2.28	2.59
2019	2.84	2.75	2.50	2.54	2.71	2.74	2.28	2.58
2020	2.85	2.75	2.49	2.54	2.69	2.76	2.31	2.58
2021	2.85	2.74	2.48	2.51	2.68	2.74	2.31	2.54
2022	2.87	2.74	2.49	2.51	2.67	2.76	2.30	2.54
2023	2.83	2.67	2.45	2.44	2.63	2.69	2.23	2.48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 자영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지금까지의 분석은 자영업이 산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LQ, HHI, 엔트로피)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살펴왔다. 그러나 자영업 생태계의 변화는 산업 구조뿐 아니라 자영업자 수 자체의 변화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장회계 방식으로 분석의 초점을 전환하여, 부산시와 전국의 자영업자 수 변화가 인구(15세 이상), 고용률, 자영업 비율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해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자영업 규모 변화의 기저 요인을 함께 이해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수의 변화는 15세 이상 인구가 증감하거나 또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이 증감하거나, 또는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인 자영업 비율 변화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요인 분해를 통해 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수의 변화(\widehat{SE})는 15세 이상 인구(\widehat{p})와 고용률(\widehat{e}), 그리고 자영업 비율(\widehat{ser})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자영업자 수 변화를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분, 고용률의 변화분, 자영업 비율의 변화분, 상호작용 변화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widehat{SE} = \widehat{p} \cdot \widehat{e} \cdot \widehat{ser}$$

$$\Delta \widehat{SE} = \Delta \widehat{p} \cdot \widehat{e} \cdot \widehat{ser} + \widehat{p} \cdot \Delta \widehat{e} \cdot \widehat{ser} + \widehat{p} \cdot \widehat{e} \cdot \Delta \widehat{ser} + \Delta \widehat{p} \Delta \widehat{e} \Delta \widehat{ser} + \Delta \widehat{p} \Delta \widehat{e} \widehat{ser} + \Delta \widehat{p} \widehat{e} \Delta \widehat{ser} + \Delta \widehat{p} \Delta \widehat{e} \Delta \widehat{ser}$$

$$\Delta \widehat{SE} / \widehat{SE} = \Delta \widehat{p} \cdot \widehat{e} \cdot \widehat{ser} / \widehat{SE} + \widehat{p} \cdot \Delta \widehat{e} \cdot \widehat{ser} / \widehat{SE} + \widehat{p} \cdot \widehat{e} \cdot \Delta \widehat{ser} / \widehat{SE} + \Delta \widehat{p} \Delta \widehat{e} \Delta \widehat{ser} / \widehat{SE} + \Delta \widehat{p} \Delta \widehat{e} \widehat{ser} / \widehat{SE} + \Delta \widehat{p} \widehat{e} \Delta \widehat{ser} / \widehat{SE} + \Delta \widehat{p} \Delta \widehat{e} \Delta \widehat{ser} / \widehat{SE}$$

위 수식에서 첫 번째 항($\Delta \widehat{p} \cdot \widehat{e} \cdot \widehat{ser} / \widehat{SE}$)은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 기여분, 두 번째 항($\widehat{p} \cdot \Delta \widehat{e} \cdot \widehat{ser} / \widehat{SE}$)은 고용률의 변화 기여분, 세 번째 항($\widehat{p} \cdot \widehat{e} \cdot \Delta \widehat{ser} / \widehat{SE}$)은 자영업 비율의 기여분,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상호작용 변화 기여분을 의미한다.

<표 18>은 부산시 자영업자 수의 변화 기여도를 성장회계 방식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2024년의 자영업자 수 감소분 34천 명을 요인 분해하면 15세 이상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여분 -1.2천 명, 고용률 증가에 따른 기여분 0.6천 명, 자영업 비율 감소에 따른 기여분 -33.4천 명,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기여분 0.1천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9>에서 자영업자 수 감소 기여분을 기여율로 환산하면 2024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변화에 따라 3%, 고용률 변화에 따라 -2%, 자영업 비율 변화에 따라 98%, 세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 -0.2%로 추정되어 자영업 비율 변화가 자영업자 수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률의 영향

은 연도에 따라 방향성과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2019~2021년에는 고용률 변화가 자영업자 수 변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전체 증가분 중 84%가 고용률 변화에 의해 설명되었다. 반대로, 2020년(코로나19 시기)에는 고용률 변화가 자영업자 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며 -53%의 기여율을 보였다. 이는 경기 충격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이 자영업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수 변화에 상대적으로 작거나 일관되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인구 요인은 기여율 기준으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5~10% 수준에 머물며, 자영업자 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산시 자영업자 수 변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나 경기 요인보다는 자영업 선택 비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 자영업의 상대적 매력도 혹은 진입·유지 가능성에 따라 크게 요동쳐 왔음을 보여준다.

<표 18> 부산시 자영업자 수 변화 기여도 분해

(단위 : 천 명)

연도	변화	인구	고용률	자영업비율	상호작용항
2011	-7	2.3	1.3	-10.5	-0.1
2012	11	0.6	9.3	1.1	0.0
2013	8	0.9	1.3	5.8	0.0
2014	-5	1.1	4.0	-10.0	-0.1
2015	-22	1.0	-2.9	-20.2	0.1
2016	-17	0.9	-0.5	-17.4	0.0
2017	-14	-1.0	0.8	-13.8	0.0
2018	-6	-1.8	-3.5	-0.8	0.0
2019	26	-1.6	5.1	22.2	0.2
2020	11	-1.4	-5.9	18.6	-0.4
2021	24	0.1	3.5	20.2	0.2
2022	-15	-1.3	6.2	-19.7	-0.3
2023	-11	-1.1	3.6	-13.4	-0.1
2024	-34	-1.2	0.6	-33.4	0.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9> 부산시 자영업자 수 변화 기여율 분해

(단위 : %)

연도	변화	인구	고용률	자영업비율	상호작용항
2011	100	-33	-18	150	1.4
2012	100	5	84	10	0.4
2013	100	11	17	72	0.5
2014	100	-23	-80	200	2.5
2015	100	-4	13	92	-0.5
2016	100	-5	3	102	0.1
2017	100	7	-6	99	0.0
2018	100	30	58	13	-0.5
2019	100	-6	20	85	0.9
2020	100	-12	-53	169	-3.4
2021	100	0	14	84	0.9
2022	100	8	-41	131	1.9
2023	100	10	-33	122	1.0
2024	100	3	-2	98	-0.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분석을 통해 부산시 자영업자 수의 연간 변화는 자영업 비율의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며, 고용률이나 인구 요인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작거나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양상은 부산에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는 구조적 현상인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20>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한 전국 단위의 자영업자 수 변화 분해 결과를 살펴본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수는 분석기간 동안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이며 매년 요인별 기여 구조가 뚜렷한 편차를 나타냈다. 특히 자영업 비율의 변화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자영업자 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도 자영업 자체에 대한 구조적 이탈 또는 진입 기피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부산과 비교해보면 차별적인 양상이 존재한다. 부산은 전체 자영업자 수 변화에서 자영업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일관되며, 고용률이나 인구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반면, 전국 단위에서는 2022년처럼 고용률이 자영업자 수 변화에 큰 폭으로 기여하는 시기가 있었고, 인구 요인 역시 일부 연도에서는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자영업 구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며, 외생적 경기 회복 효과가 자영업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산은 자영업자의 규모 변화가 자영업 비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전국은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즉, 전국의 경우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시장 개선이 자영업에도 일정 정도 반영된 반면, 부산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자영업 회복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요약하면, 부산과 전국 모두 자영업자 수 변

화에서 자영업 비율의 변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부산은 자영업 구조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복 탄력성은 낮고 외부 고용 여건의 개선 효과도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차이는 부산이 자영업 관련 정책 수립 시, 전국 평균에 기반한 일괄적 접근보다는 지역의 구조적 조건에 맞춘 정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0> 전국 자영업자 수 변화 기여도 분해

(단위 : 천 명)

연도	변화	인구	고용률	자영업비율	상호작용항
2011	14	77.7	37.8	-99.9	-1.5
2012	111	64.2	34.1	12.1	0.6
2013	-65	61.6	17.7	-142.5	-1.8
2014	17	66.2	67.8	-115.1	-1.9
2015	-98	59.3	2.7	-158.3	-1.7
2016	-8	47.7	1.9	-57.1	-0.5
2017	68	41.8	25.1	0.8	0.2
2018	-44	32.5	-11.8	-64.4	-0.3
2019	-32	41.1	22.0	-94.2	-0.9
2020	-75	35.4	-80.2	-30.0	-0.3
2021	-18	36.4	39.2	-92.6	-1.0
2022	119	22.0	142.4	-44.6	-0.8
2023	57	18.3	47.1	-8.5	0.1
2024	-32	20.4	11.6	-63.7	-0.3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 전국 자영업자 수 변화 기여율 분해

(단위 : %)

연도	변화	인구	고용률	자영업비율	상호작용항
2011	100	555	270	-714	-11.0
2012	100	58	31	11	0.5
2013	100	-95	-27	219	2.7
2014	100	389	399	-677	-11.4
2015	100	-61	-3	162	1.7
2016	100	-596	-23	714	6.1
2017	100	62	37	1	0.3
2018	100	-74	27	146	0.7
2019	100	-128	-69	294	2.8
2020	100	-47	107	40	0.4
2021	100	-202	-218	514	5.6
2022	100	18	120	-37	-0.6
2023	100	32	83	-15	0.1
2024	100	-64	-36	199	1.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III. 선행연구

한국의 자영업 생태계는 지난 수십 년간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전, 노동시장 구조 재편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 지역은 자영업 의존도가 높았던 도시 구조적 특성상 자영업자 구성의 변화뿐 아니라, 자영업의 업종 분포와 지속 가능성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구조적 재편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현상이다. 안균원(2024)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재편이 자영업자의 연령 및 학력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분석하면서, 고령층에서 자영업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는 전 연령·학력 계층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임금근로 선호 증가, 자영업의 수익성 저하, 교육 수준 향상 등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해석된다. 황영순 외(2020)의 연구에서도 부산 지역 자영업자의 연령 분포에서 50대와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 사업주 중 50대 이상 비중이 2019년 기준 67.6%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보였다. 또한, 남윤형(2019)은 인구절벽이 자영업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고령화된 경영주의 낮은 경쟁력과 고령 소비층의 비전통적 소비 행태가 자영업 구조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김지운(2020)은 자영업자 수의 장기적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자영업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생산가능인구 확대 등 인구구조적 요인이었으며,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 조세제도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자영업 진입을 억제하면서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는 자영업 규모가 인구구조와 정책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어 왔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 기간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들어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청년 인구 유출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지역 차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영근(2024)은 부산의 2023~2024년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3% 급감한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 정원 축소를 지목하였다. 특히 대학가 상권에서의 공실률 급증은 청년 소비층의 이탈이 자영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 생태계 간의 연계를 통계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해석의 범위는 상관관계 수준에 머무른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2021)는 코로나19 직후 부

산의 자영업자는 전국 평균과 달리 증가했지만, 이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중심의 일시적인 창업 증가에 따른 현상인 점을 밝혔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영업규제 업종에서 폐업이 급증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중 영업 중인 비율은 38%에 그치고, 휴·폐업·말소 상태의 사업체 비율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순 외(2020)는 이와 같은 구조적 쇠퇴의 배경으로 지역 내 인구 감소, 소비 트렌드의 비대면화, 집합상가의 공실 증가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경기 순환 이상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부산의 자영업 생태계가 전국 평균보다 인구구조 변화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지역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기술적 환경 변화 역시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정희완 외(2025)는 유통 및 음식배달 플랫폼의 확산이 자영업에 미친 영향을 전국사업체조사, 신용카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무점포 소매업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점포 기반 소매 자영업자의 고용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적응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자영업체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일자리 감소와 매출 위축이 심화되며, 이는 자영업 생태계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자영업자의 생존 및 폐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도 존재한다. 남윤미(2017)는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여 자영업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인구 및 소득 수준, GRDP, 소비자물가지수 등 거시경제 요인과 더불어 임대료, 고정 인건비, 대출 이자율과 같은 비용 요인이 폐업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종 업종 내 경쟁 정도와 업체의 업력, 규모도 생존 가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는 자영업의 수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주목된다. 고령화가 소비 구조와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주영 외(2019)의 연구는 자영업의 업종 구조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장래 가구 추계와 연령별 소비 지출 구조를 바탕으로 고령화가 산업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감소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도 고령화는 자본스톡과 노동 투입의 감소,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유발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업종 구조의 선제적 전환과 정책적 유도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요컨대, 기존 연구들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기술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에서 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자영업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요인을 지역·상권 수준의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백은, 지역 단위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 생태계 간의 구조적 연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후속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IV. 분석 방법 및 결과

1. 부산지역 패널 회귀분석

가. 분석 방법 및 자료

본 절에서는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의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영업 비율, 개업률, 폐업률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에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구·군 연도 단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6개 구·군에 대해 전국사업체 조사의 사업체 및 종사자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균형 패널(balanced panel)로 구성하였다.⁶⁾ 자영업 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의 시계열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연도그룹별 이질적 효과 및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확장 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인구구조 변수의 이질적 시간 효과와 구조적 공변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Y = \sum_{g=0}^2 (\beta_g^{(1)} \cdot Yeargroup_{gt} \cdot Young_{i,t-1} + \beta_g^{(2)} \cdot Yeargroup_{gt} \cdot Elderly_{i,t-1}) + \gamma X_{i,t-1} + \lambda_i + \delta_t + \epsilon \quad (1)$$

여기서 Y_{it} 는 16개 구·군 i 의 연도 t 의 자영업 관련 변수, $Young_{i,t-1}$ 은 15~34세 인구 비중의 1기 시차, $Elderly_{i,t-1}$ 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1기 시차, $Yeargroup_{gt}$ 은 연도그룹 더미(0:2011~2014년, 1:2015~2019년, 2:2020~2023년), X_{it} 는 통제변수 벡터로 인구증감률, 상대적 GRDP, HHI를 포함하고, λ_i 는 구·군 고정효과, δ_t 는 연도 고정효과, ϵ_{it}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종속변수로는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와 동학을 반영하는 자영업 비율, 개업률, 폐업률의 3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자영업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규모를 보여주는 정태적 지표이고, 개업률과 폐업률은 일정 기간 내 진입과 퇴출의 흐름을 반영하는 동태적 지표다. 따라서 자영업 비율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개업률과 폐업률 간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 비율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합을 비율로 계산하였다. 특히 자영업자 외에도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계형 자영업 및 가족 기반 운영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어 자영업 생태계의 실질적 규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자 했다. 개업률은 자영업 생태계의 유입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개인사업체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연도에 신규로 등록된 개인사업체 수를 전년도 전체 개인사업체 수로 나눈 비율로 산출하였다. 신규 사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설립연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에 처음 설립된 개인사업체로 식별하였으며, 법인사업체는 제외하고 개인사업체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폐업률은 자영업 부문의 이탈을 나타내는 지표로, 역시 개인사업체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전년도에 존재했으나 해당 연도에 소멸된 개인사업체 수를 전년도 전체 개인사업체 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폐업 여부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식별번호의 연속성을 이용하여 식별하였다.⁷⁾ 인구구조 변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연도별 16개 구·군 단위의 15~34세 및 65세 이상 인구비중, 인구증감률을 산출하였다.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은 구조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자영업 지표에 대한 내생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외생 변수로 취급하였으며, 1기 시차 처리를 통해 자영업 관련 지표와의 동시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다만, 자영업 기회나 환경 변화가 인구 유입·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가능성은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⁹⁾ 통제변수로는 지역 인구 규모 변화(인구증감률), 경제력 수준(상대적 GRDP), 산업구조 집중도(HHI)를 포함하였다. GRDP의 경우 동일 연도 부산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각 16개 구·군의 1인당 GRDP 수준을 상대적 비율로 환산하였다. 이는 부산시 내 구·군 간 경제 규모 차이를 정규화하고, 자영업 관련 지표에 대한 지역 경제력의 상대적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¹⁰⁾ 산업구조 집중도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구·군별 산업 집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산업별 편중 정도를 통제하는데 활용하였다.¹¹⁾ 이는 자영업 규모와 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 특성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자영업자의 입지 조건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편, 연도그룹의 구분은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자

7) 전국사업체조사는 폐업연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 식별ID가 관찰되지 않는 연도를 폐업연도로 정의하였다.

8) 2020년부터 전국사업체조사가 등록기반으로 전환되며 사업체 수가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기준 총사업체 수에 (신규 - 폐업)을 누적인 조정 분모를 사용하여 개업률·폐업률을 산출하였다. 이로 인해 수준치는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은 부호와 시기별 패턴에 중점을 두었다.

9) 1인 가구 비중과 여성 인구 비중은 연령구조 변수와의 높은 상관(구성자료 특성·다중공선성) 및 근무지 - 거주지 기준의 공간 정합성 문제로 인해 계수 해석의 식별력이 약해질 수 있다. 16개 구·군의 소표본에서 추가 공변량을 포함하면 자유도 축소와 추정 불안정성이 커지므로, 기본 모형은 연령구조 변수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0) 지역소득 통계는 2025년 8월 현재 2022년까지 제공되므로, 2023년 값은 이전 기간의 시계열 추세를 바탕으로 선형 외삽(linear extrapolation)하여 보완하였다.

11) 종속변수는 근무지 기준(전국사업체조사), 일부 설명·통제변수는 거주지 기준(주민등록)으로 산출되어 구·군 단위에서 적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측정오차는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를 과소추정(enuation)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분석 결과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볼 수 있다.

6) 프로젝트 번호: RAS25070205

영업 환경의 이질적 반응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010년대 초반은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청년 인구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이던 시기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 인구 이탈이 본격화되고, 동시에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전환기로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생적 충격기로, 디지털 전환 가속,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연도그룹의 설정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효과들이 시기별로 다르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확장된 두 번째 모형에서는 시간 변수를 도입하여 인구구조 변수와 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Y = \beta_0^{(1)} \cdot Young_{i,t-1} + \beta_0^{(2)} \cdot Elderly_{i,t-1} + \beta_1^{(1)} \cdot Young_{i,t-1} \cdot s + \beta_1^{(2)} \cdot Elderly_{i,t-1} \cdot s + \gamma X_{i,t-1} + \lambda_i + \delta_t + \varepsilon \quad (2)$$

여기서 s 는 시간 변수로 각 연도에서 시작 연도인 2010년을 차감한 값, $\beta_1^{(1)}$ 과 $\beta_1^{(2)}$ 는 각각 청년과 고령 인구 비중의 시간에 따른 효과 변화 추정치를 나타낸다. 이 모형은 청년 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그 변화 방향을 구조적으로 추정한다. 앞선 모형과 마찬가지로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공통 시계열 요인은 제거하였다. 모든 회귀모형은 구·군별 해당 연도 인구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지역 간 인구 규모 차이를 반영한 가중 회귀(weighted least squares)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규모가 작은 지역의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전체 자영업 구조 변화에 대한 추정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모든 모형은 동일 지역 내 반복 관측으로 인한 표준오차 과소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구·군 단위로 클러스터링된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이질적 분산 및 자기상관 문제에 강건한 추정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은 지역의 경제, 상권 여건, 인구가동, 정주와 함께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일부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워 계수 추정치에 일정한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해석은 부호와 패턴을 중심으로 하고, 계수의 절대 크기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나. 분석 결과

<표 22>는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이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 결과를 제시한다. 총 4개 모형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며, 기본 이원고정효과 모형, 통제변수 포함 모형, 연도그룹 상호작용 모형, 시간 상호작용 모형으로 확장된다. 모

형 (1)은 인구구조 변수인 청년 인구 비중, 고령 인구 비중과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만을 포함한 기본 모형이다. 계수 추정치는 각각 -0.3963, -0.4491로 나타났으며 고령 인구 비중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나타냈다. 즉, 고령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자영업 비율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형 (2)는 여기에 경제 관련 통제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으로, 인구증감율, 상대적 GRDP, 산업구조의 대리변수인 HHI의 1기 시차 값들을 포함하였다. 결과는 앞선 모형 (1)과 유사하게 청년 인구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0.2403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인구구조의 영향이 특정 시기에만 국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 그룹(2011~2014, 2015~2019, 2020~2023)과의 상호작용 항을 도입하여 시기별 이질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인구 비중의 경우 앞선 두 기간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였으나 마지막 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인구 비중과 자영업 간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고령 인구 비중의 부정적 효과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연도그룹별로 고령 인구 비중 1%p 증가시, 자영업 비율은 약 -0.79%p, -0.56%p, -0.4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가 자영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 현상이 아닌,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구조적 관계임을 보여 주며 지속적으로 자영업 규모 축소와 연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효과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적인 시간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대안적 모형의 결과를 제시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 비중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초기에는 청년 인구 증가가 자영업 축소와 강하게 연결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정적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 인구 비중 또한 시간에 따라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상대적 GRDP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역 경제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영업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인구증감률과 산업 집중도(HHI)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 비율이 고령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이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표 22> 인구구조가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4)
청년비중	-0.3963 (0.2627)	-0.2740 (0.2736)		-0.8971*** (0.2765)
고령비중	-0.4491*** (0.0984)	-0.2403** (0.1015)		-0.6579*** (0.1190)
연도그룹 × 청년비중				
2011-2014			-1.2416*** (0.3982)	
2015-2019			-0.7505*** (0.2838)	
2020-2023			-0.3002 (0.2271)	
연도그룹 × 고령비중				
2011-2014			-0.7858*** (0.2051)	
2015-2019			-0.5554*** (0.1329)	
2020-2023			-0.4133*** (0.0954)	
시간변수 × 청년비중/고령비중				
청년비중				0.1156*** (0.0220)
고령비중				0.0506*** (0.0124)
통제변수				
인구증감률		0.0750 (0.0541)	0.0359 (0.0593)	0.0101 (0.0570)
상대적 GRDP		-0.0635*** (0.0197)	-0.0562*** (0.0159)	-0.0566*** (0.0146)
HHI		0.0572 (0.0697)	0.0285 (0.0552)	0.0302 (0.0513)
연도FE	○	○	○	○
지역FE	○	○	○	○
시간선형				○
관측치	208	208	208	208
Overall R^2	0.9478	0.9552	0.9609	0.9630
Within R^2	0.1390	0.2610	0.3557	0.3892

주 : <표 22>는 인구구조가 자영업 비율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인지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Conley(공간-HAC)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나타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역소득(1인당 GRDP)을 사용하여 자가 작성

다음으로, <표 23>은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 변화가 자영업 개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한다. 개입률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고령 인구 비중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청년 인구 비중이 개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령 인구 비중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낸다. 즉, 고령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자영업 개입률은 약 0.2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2)에서는 인구증감률, 상대적 GRDP, 산업 집중도(HHI)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고, 고령 인구 비중의 계수는 -0.3112로 여전히 유의했으나 청년 인구 비중은 모형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령화가 자영업 개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모형 (3)에서는 연도그룹과 인구구조 간 상호작용항을 통해 시기별 이질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청년 인구 비중의 경우 세 시기 모두에서 개입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인구의 지역 내 비중 변화가 자영업 개입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가 시기별로도 뚜렷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두 시기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팬데믹 시기 이후에도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입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015~2019년 기간의 계수는 -0.1825로 감소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4)에서는 시간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구구조 효과의 시간적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구 비중, 고령 인구 비중 모두 시간에 따라 개입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기적 충격이나 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상대적 GRDP와 산업 집중도(HHI)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역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개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HHI 역시 자영업 개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산업에 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개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인구증감률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면, 고령 인구 비중은 자영업 개입률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 인구 비중은 개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 혹은 시간에 따른 변화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자영업 개입이 고령 인구 비중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청년 인구 비중 변화와는 명확한 연결고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개입 기반 약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3> 인구구조가 자영업 개입률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4)
청년비중	0.2140 (0.1690)	-0.1252 (0.1594)		-0.0269 (0.1959)
고령비중	-0.2090*** (0.0559)	-0.3112*** (0.0767)		-0.2514*** (0.0787)
연도그룹 × 청년비중				
2011-2014			-0.0689 (0.2996)	
2015-2019			0.1528 (0.2493)	
2020-2023			-0.0999 (0.1613)	
연도그룹 × 고령비중				
2011-2014			-0.4771*** (0.1411)	
2015-2019			-0.1825 (0.1124)	
2020-2023			-0.3467*** (0.0694)	
시간변수 × 청년비중/고령비중				
청년비중				-0.0311 (0.0213)
고령비중				-0.0024 (0.0143)
통제변수				
인구증감률		0.0391 (0.0521)	0.0467 (0.0442)	0.0484 (0.0543)
상대적 GRDP		0.0324*** (0.0114)	0.0359*** (0.0102)	0.0312*** (0.0106)
HHI		0.1254*** (0.0427)	0.1023** (0.0422)	0.1277*** (0.0398)
연도FE	○	○	○	○
지역FE	○	○	○	○
시간선형				○
관측치	208	208	208	208
Overall R^2	0.9433	0.9504	0.9560	0.9519
Within R^2	0.0720	0.1889	0.2796	0.2125

주 : <표 23>은 인구구조가 자영업 개입률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인지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Conley(공간-HAC)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나타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역소득(1인당 GRDP)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마찬가지로, <표 24>는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이 자영업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한다. 모형 (1)에서는 청년 인구 비중이 폐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폐업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모형 (2)에서는 인구증감률, 상대적 GRDP, 산업집중도(HHI)를 통제변수로 추가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의 계수는 -0.5123을 기록하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연도그룹과 인구구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시기별 이질적 효과를 분석한다. 고령 인구 비중의 경우, 세 시기 모두에서 자영업 폐업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값은 각각 -0.4487, -0.5143, -0.4658로 각각 5%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령 인구 비중이 자영업 폐업률 감소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자영업 시장의 동태성이 낮고, 시장의 진입·퇴출이 전반적으로 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은 인구 감소, 소비 수요 정체, 창업 유인 저하 등과 함께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고착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폐업의 발생 빈도 자체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폐업률의 하락은 고령 자영업자의 생존력 때문이기보다는, 고령 인구 중심의 지역이 가지는 시장의 정체성과 구조적 안정성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반면, 청년 인구 비중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시간 변수와의 상호작용 항을 도입하여 인구구조 효과의 시간적 추세를 분석하였다. 청년 인구 비중과 시간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 인구 비중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상대적 GRDP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역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폐업률이 다소 높은 경향을 반영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창업과 퇴출이 동시에 빈번히 일어나는 동적인 시장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 집중도(HHI)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인구증감률은 모형 (2)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령 인구의 증가는 자영업 비율과 개입률, 폐업률 모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령화가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저하와 구조적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청년 인구 비중의 변화는 개입률과 폐업률에 대한 전반적 영향이 크지 않지만, 시기별 이질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패턴을 균형 조정의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의 최적 규모는 지역의 생산성, 상대가격, 고정비용 등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관찰된 고령화 및 청년 인구 비중 감소 하에서의 자영업 관련 지표의 하향 조정은 효율적 재배분일 수도 있고, 일부 부문에서는 시장 마찰로 인한 과소조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자영업 정책 설계에 있어 연령대별로 상이한 기제와 대응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

층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 폐업 연락처,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하며, 청년층에 대해서는 단순한 창업 지원보다는, 지역 내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기회의 질과 안정성 제고, 비자발적 자영업 진입 억제에 위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표 24> 인구구조가 자영업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4)
청년비중	0.2882 (0.2064)	0.1912 (0.2170)		0.4003* (0.2154)
고령비중	-0.4069*** (0.0778)	-0.5123*** (0.0936)		-0.3728*** (0.1317)
연도그룹 × 청년비중				
2011-2014			0.4064 (0.2843)	
2015-2019			0.1047 (0.2219)	
2020-2023			0.1573 (0.2381)	
연도그룹 × 고령비중				
2011-2014			-0.4487** (0.2033)	
2015-2019			-0.5143*** (0.1019)	
2020-2023			-0.4658*** (0.0911)	
시간변수 × 청년비중/고령비중				
청년비중				-0.0402** (0.0178)
고령비중				-0.0164 (0.0172)
통제변수				
인구증감률		-0.1486* (0.0870)	-0.1494 (0.0947)	-0.1269 (0.0943)
상대적 GDP		0.0453*** (0.0021)	0.0432*** (0.0047)	0.0430*** (0.0068)
HHI		0.0194 (0.0542)	0.0217 (0.0614)	0.0283 (0.0608)
연도FE	○	○	○	○
지역FE	○	○	○	○
시간선행				○
관측치	208	208	208	208
Overall R^2	0.9163	0.9226	0.9240	0.9238
Within R^2	0.1222	0.1889	0.2035	0.2016

주 : <표 24>는 인구구조가 자영업 폐업률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인지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Conley(공간-HAC)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나타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역소득(1인당 GDP)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5>~<표 27>은 청년 인구(19~34세)의 순유입률이 자영업 비율, 개업률,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 회귀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자영업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기본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청년 순유입률의 계수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도그룹 상호작용 모형에서도 모든 기간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순유입이 지역 자영업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절대적인 계수 크기는 작기 때문에 그 효과의 규모는 제한적임을 전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개업률과 폐업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청년 순유입률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일부 모형에서 계수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시기별 상호작용 항 및 시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청년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이 자영업 진입(개업)이나 이탈(폐업)의 직접적인 활성화 또는 억제와는 명확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인구가 지역 내에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자영업에 진입하거나 철수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며 자영업 선택보다는 임금노동시장 참여나 비자영업 분야에 더 많이 흡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구 유입 자체가 자영업의 동학에 긍정적인 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한다고 보기보다는, 청년 유입이 실제로 자영업 생태계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벽, 시장 여건, 진입 인센티브 등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25>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효과

변수	(1)	(2)	(3)	(4)
청년 순유입률	0.0004 (0.0005)	0.0039*** (0.0012)		0.0036*** (0.0012)
연도그룹 x 청년 순유입률				
2011-2014			0.0030** (0.0012)	
2015-2019			0.0042*** (0.0013)	
2020-2023			0.0040*** (0.0011)	
시간변수 x 청년 순유입률				
청년 순유입률				0.0001 (0.0001)
통제변수				
인구증감률		-0.4733*** (0.1502)	-0.4489*** (0.1605)	-0.4112** (0.1607)
상대적 GRDP		-0.0744*** (0.0194)	-0.0717*** (0.0189)	-0.0691*** (0.0190)
HHI		0.0231 (0.0530)	0.0033 (0.0548)	0.0142 (0.0539)
연도FE	○	○	○	○
지역FE	○	○	○	○
시간선형				○
관측치	208	208	208	208
Overall R^2	0.9397	0.9570	0.9582	0.9574
Within R^2	0.0051	0.2909	0.3103	0.2968

주 : <표 25>는 청년 인구(19-34세) 순유입률이 자영업 비율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인지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Conley(공간+HAC)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나타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소득(1인당 GRDP)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6>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자영업 개입률에 미치는 효과

변수	(1)	(2)	(3)	(4)
청년 순유입률	0.0005 (0.0004)	-0.0000 (0.0011)		-0.0003 (0.0013)
연도그룹 x 청년 순유입률				
2011-2014			0.0001 (0.0016)	
2015-2019			-0.0005 (0.0013)	
2020-2023			-0.0000 (0.0012)	
시간변수 x 청년 순유입률				
청년 순유입률				0.0001 (0.0001)
통제변수				
인구증감률		0.0249 (0.1398)	0.0561 (0.1601)	0.0867 (0.1655)
상대적 GRDP		0.0142* (0.0082)	0.0157 (0.0108)	0.0195* (0.0109)
HHI		0.1471*** (0.0421)	0.1547*** (0.0422)	0.1382*** (0.0418)
연도FE	○	○	○	○
지역FE	○	○	○	○
시간선형				○
관측치	208	208	208	208
Overall R^2	0.9397	0.9456	0.9464	0.9462
Within R^2	0.0137	0.1106	0.1237	0.1200

주 : <표 26>은 청년 인구(19-34세) 순유입률이 자영업 개입률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인지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Conley(공간+HAC)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나타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소득(1인당 GRDP)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Open/Close_{it} = \alpha_t + \gamma_i + \beta_1 15 - 34_{it-1} + \beta_2 65^+_{it-1} + \beta_3 PopDensity_{it-1} + X_{it-1} \cdot \delta + \epsilon_{it} \quad (3)$$

식 (3)의 관심변수는 $\beta_1, \beta_2, \beta_3$ 로 이는 전년도 청년인구(15~34세) 비중,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전년도 지역인구밀도와 개인사업체의 개업 및 폐업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회귀식 계수의 표준오차는 시군구 단위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로 계산하였고, 가중치의 경우 지역 i 의 t 기 전체 인구를 사용하여 가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28>은 분석 표본의 기술 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8> 분석 표본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업률	2,964	0.164	0.043	0.037	0.423
폐업률	2,964	0.169	0.045	0.052	0.717
청년비중	2,964	0.262	0.037	0.104	0.364
고령비중	2,964	0.139	0.057	0.052	0.438
인구밀도(백명)	2,964	68.888	70.827	0.191	286.005
물가지수	2,964	96.372	5.412	85.162	108.980
실업률	2,964	3.558	0.776	1.500	5.000
1인당 GRDP(로그)	2,964	10.393	0.274	9.704	11.258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개·폐업률), 인구동향조사(청년, 고령 및 총 인구), 한국도시통계(면적), 소비자물가지수(물가지수),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률), 지역소득(1인당 GRDP)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개업률은 평균 16.4%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폐업률은 평균 16.9%로 개업률보다 약간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폐업 집중 현상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청년인구 비중은 평균 26.2%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고령인구 비중은 평균 13.9%로 지역 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밀도의 표준편차는 70.8로 평균보다 큰 값을 보여,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밀집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실업률은 평균 3.56%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1인당 GRDP(로그)는 평균 10.39로 비교적 균일한 경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개·폐업률과 인구구조 지표 간에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분포가 관찰되며, 인구 고령화나 밀집도 등의 차이가 자영업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9>는 회귀식 (3)의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년도 청년(15~34세) 비중이 높을수록 개업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신규 사업 진입이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비중이 1%p 늘어날 때, 개업률의 경우 0.50%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도 고령(65세 이상) 비중이 높을수록 개업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반대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체 진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전년도 고령 비중은 폐업률과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폐업률이 유의하게 낮아, 고령층의 사업 운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년도 인구밀도는 개업률에 미약한 정(+)의 효과가 있었지만, 폐업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인구밀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1,000명 증가 시, 개업률의 경우 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계수의 방향은 각 시군구가 속한 광역시 및 도의 실업률, 1인당 GRDP(로그), 물가지수를 포함하여도 변하지 않았다.

<표 29> 인구구조가 개인사업체 개업률 및 폐업률에 미치는 효과

변수	(1)	(2)	(3)	(4)
	개업률	개업률	폐업률	폐업률
전년도 15-34세 비중	0.504*** (0.172)	0.339** (0.161)	0.278** (0.132)	0.172 (0.131)
전년도 65세 이상 비중	-0.207 (0.125)	-0.206* (0.117)	-0.369*** (0.102)	-0.373*** (0.0979)
전년도 인구밀도	0.0003 (0.000308)	0.000611* (0.000322)	-0.000127 (0.000256)	-3.21e-05 (0.000291)
전년도 물가지수		0.00322* (0.002)		-0.000971 (0.00181)
전년도 실업률		-0.00631*** (0.002)		-0.00235 (0.00157)
전년도 로그 GRDP		0.0469** (0.020)		0.0440*** (0.0152)
Constant	0.0418 (0.067)	-0.714*** (0.232)	0.156*** (0.0538)	-0.177 (0.201)
시군구 고정효과	0	0	0	0
기간 고정효과	0	0	0	0
Observations	2,964	2,964	2,964	2,964
R-squared	0.835	0.842	0.819	0.820

주 : <표 29>는 인구구조가 개인사업체 개업 및 폐업률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인지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시군구 단위 군집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나타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개·폐업률), 인구동향조사(청년, 고령 및 총 인구), 한국도시통계(면적), 소비자물가지수(물가지수),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률), 지역소득(1인당 GRDP)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통계 변수로 사용된 전년도 물가지수는 개업률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의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체의 개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업기회가 더 많거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신규 창업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물가지수가 1단위 상승할 때, 개업률은 약 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폐업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년도 실업률의 경우, 개업률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역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신규 사업체의 개업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창업 의지가 감소하거나 창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률은 폐업률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1인당 GRDP(로그값)는 개업률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역의 소득 수준(GRDP)이 높은 지역일수록 신규 사업체 진입이 활발하며 경제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로그 GRDP가 1% 증가할 때 개업률은 약 0.0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률 또한 로그 GRDP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도 높아져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동시에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향후 부산지역 자영업 규모 추정 시나리오 분석

다음은 회귀식 (3)의 추정 결과와 2052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중위)를 토대로 부산 지역 개·폐업률과 개인사업체 수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았다. 부산의 지역구로 추정된 <표 23>과 <표 24>의 경우, 부산의 일시적이고 특수한 요인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52년까지 부산의 장기 장래 사업체 수를 전망하기 위하여 <표 29>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2052년까지의 부산 지역의 추계인구를 토대로 2024년부터 2052년까지의 추계 청년 비중, 추계 고령 비중, 추계 인구밀도¹²⁾를 구한 뒤, 이를 <표 29>의 (2)열과 (4)열의 $\beta_1, \beta_2, \beta_3$ 값과 곱하여 장래 개·폐업률과 개인사업체 수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장래 개·폐업률 및 장래 개인사업체 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Open/Close_{it} = \overline{Open/Close}_{it-1} + \beta_1 \Delta 15 - 34_{it-1} + \beta_2 \Delta 65^+_{it-1} + \beta_3 \Delta PopDensity_{it-1} \quad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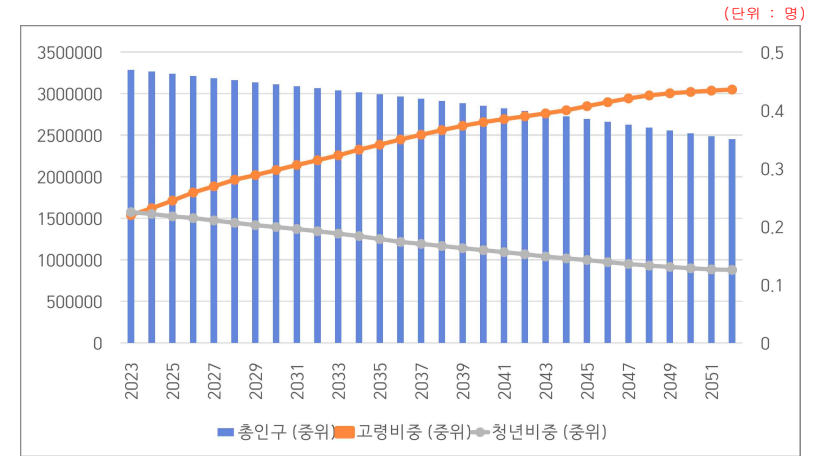
$$N_{it} = N_{it-1} + Open \cdot N_{it-1} - Close \cdot N_{it-1} \quad (5)$$

식 (4)와 식 (5)는 인구구조 이외 다른 변수들의 변화가 없을 때의 개업률과 폐업률(식 4), 개인사업체 수(식 5)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의 추계인구와 고령 및 청년 비중은 <그림 10>과 같다.

12) 추계인구의 경우, 시군구가 아닌 각 시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 부산 대비 각 시군구의 2023년 청년 및 고령 비중, 인구 비중을 부산의 연령별 추계인구를 곱하여 각 시군구의 추계 인구, 고령 및 청년 비중을 구하였다.

13) $\overline{Open/Close}_{it-1}$ 은 2022년과 2023년 개·폐업률 평균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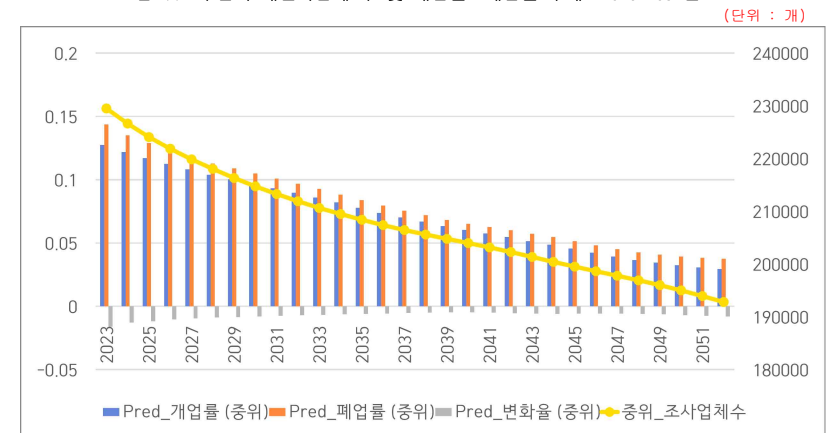
<그림 10> 부산시 인구구조 변화 추계: 2023-2052년



자료: 장래인구추계(2022)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부산의 총 추계인구의 경우 2023년 328만여 명에서 2052년 245만여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2.0%에서 43.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년인구 비중의 경우 22.5%에서 12.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11> 부산시 개인사업체 수 및 개업률·폐업률 추계: 2023-20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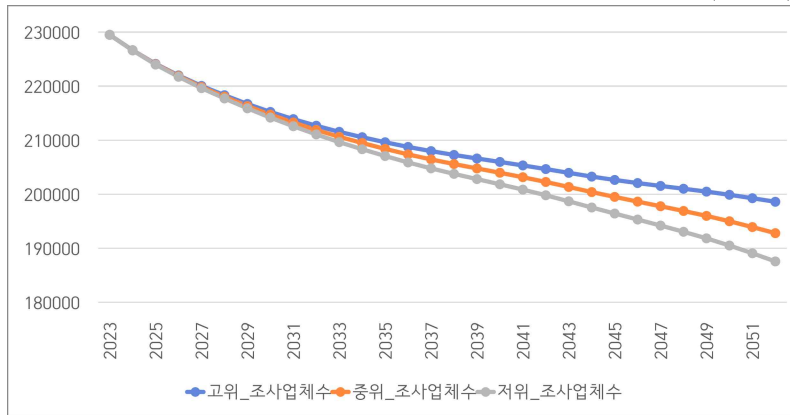


자료: 장래인구추계(2022)와 <표 29>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개인사업체 수, 개업률 및 폐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총인구 및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해 부산 지역의 개인사업체 개·폐업률 모두 감소 추세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개업률의 경우 2023년 12.7%에서 2052년 3.3%로, 폐업률의 경우 14.4%에서 4.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기간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높음에 따라 개인사업체 수는 2023년 23만여 개에서 2052년 19만 4천여 개로 약 15.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12> 부산시 저위, 중위 및 고위 개인사업체 수 추계: 2023-2052년

(단위 : 개)



자료 : 장래인구추계(2022)와 <표 29>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2>는 개인사업체 수 전망에 대한 부산 지역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위 시나리오(인구구조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인구가 덜 감소하는 경우)의 개인사업체 수는 2023년 약 23만 개에서 2052년 약 19만 7천여 개로 14.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위 시나리오(인구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경우)에서는 같은 기간 약 23만 개에서 약 18만 6천여 개로 약 19.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청년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개업률이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개업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청년층을 유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장 업종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초기 비용 절감, 공유 인프라 제공, 성과기반 금융 지원 등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의 확충 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폐업률을 낮추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 고령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은퇴 후 창업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고령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디지털 적응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과 같은 정책이 고령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령 자영업자에게는 폐업 이후의 채무조정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정적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산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개·폐업률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개·폐업률이 낮아 경제 활력이 부족한 반면, 최근 개발된 지역은 개·폐업률의 변동성이 높았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한 창업지원 정책, 신도시 및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안정적인 창업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순유출,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인구학적 특징이 자영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년층 감소와 고령층 증가는 소비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여 자영업의 전통적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개업과 폐업의 순환 속도가 둔화되면서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단순히 자영업 규모의 축소를 넘어,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향후 예상되는 디지털 전환, 산업 전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적 대응은 청년층의 단순한 정착 유도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청년 인구의 대규모 순유출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전환의 기회를 넓히고,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영업 진입을 원하는 청년층에게는 운영비·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과 함께 불필요한 창업 진입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전을 허용하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이미 자영업을 영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디지털화, 업종 전환, 공동화(공동물류·공동마케팅)와 같은 질적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규 창업만큼이나 지역 자영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은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의 원천으로도 볼 수 있다. 보건·복지, 고령친화식품, 생활·의료서비스 등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수요가 확대될 분야이며, 부산 자영업이 이러한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원도심과 신개발 지역의 상이한 상권 구조에 맞추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도심은 낮은 개·폐업률로 인해 저활력이 고착되는 상황이므로, 공실 활용, 사업전환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전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신개발 지역은 높은 개·폐업률 속에서 상권이 불안정하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안정적 운영과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적합하다.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물류·제조업 기반 자영업은 디지털 전환과 공동조달 시스템을 활용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산 자영업의 과제는 단순히 청년층의 유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연착륙과 전환, 그리고 차세대 수요 창출에 있다. 청년층의 무분별한 창업 진입을 유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질 높은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중장년층과 고령층 자영업자의 전환·퇴출 비용을 줄이고, 고령친화

소비시장과 연결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부산 자영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한계도 존재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 동향 간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인과적으로 식별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으며, 전국사업체조사 등 자료의 변화로 인해 일부 시계열 비교에 단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상권 유동인구, 비용구조 등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향후 연구에서 카드매출·통신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부산 자영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제약 속에서도 맞춤형 정책 설계와 산업·공간적 전환 전략을 통해 충분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핵심은 청년층 정주에만 의존하는 접근을 넘어, 다층적 인구구조에 대응한 자영업 생태계의 재편에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은 변화하는 인구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2024), "최근 부산 자영업자 감소 현황 및 배경", 지역산업과 고용, 108-115.
- 김원규(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 소비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22, 1-12.
- 김주영, 김원규, 김인철, 임소영, 조재환, 길은선, 송단비, 송영진, 임은정, 정선인, 김한원, 이영환(20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274. 산업연구원
- 김지운(2020), "한국의 자영업자 수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3장,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남윤미(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Exit of Self-Employed Businesses in Korea)", 한국은행
- 남윤형(2019),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19-23호, 중소기업연구원
-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2021), "코로나19 이후 부산 자영업자 변화 분석", 부산연구원
- 안균원(2024),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정희완, 정민수, 강보민, 이영호, 안지민(2025),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No.2025-19, 한국은행
- 황영순, 서옥순, 손헌일(2020), "부산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 부산연구원